

# 성도의 빛 6





# 영감의 멧세지

마크 이. 피터슨  
(12사도 정원회)

신앙개조에 보면 “우리는 정직을……믿는다”라는 말씀이 있다.  
(신앙개조 13조)

이것은 우리의 종교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의 한가지이며 많은 사람들이 지켜 생활하기 가장 힘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정직은 침체나 죽은 자의 부활처럼 참 기독교 정신의 바탕이 되며 모든 성격 형성의 근원이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을 때에 그는 우리에게 목적의 진실성, 다시 말해서 정직성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리스도는 원리에 관한 문제로 망서리는 분일까? 표리가 부동하고 사악한 행동을 장려하시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하시는 분일까?

“도적질하지 말찌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찌니라”,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찌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도하는 바는 무엇이이었을까? 그분은 우리가 크게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작은 것 좁은 허용하시는 분일까? 우리가 중한 절도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훔치는 것을 허용하시는 분 일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처럼 흉악한 교리를 실제로 믿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한심하기 짝이없다. 구원을 받아 그분의 면전에 갈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뿐이다. 모든 형태의 위선을 버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방법이다.

제 4 권 제 6 호

## 순 서

1968년 6월호

권두언 : 신전의 목적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1
왜 물몬은 신전을 짓는가? 마크 이. 피터슨.....	8
신전을 향하여 존 에이. 윌츠 .....	16
계시 도일 엘. 그린 .....	19
고대 신전과 그 기능에 관하여 시드니 비. 스페리 .....	24
말일성도의 결혼관 휴 비. 부라운 .....	30

이달의 표지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 중의 하나는 신전과 그 안에서 집행되는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리라고 하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본 성도의 벗에 취급한 기사나 사진 설명은 교회 회원이나 그의 이웃에게 더 없는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권 표지의 사진은 솔트레이크 신전이며 뒷 표지의 사진은 오클랜드 신전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가까운 물몬 교회를 방문 하시거나 선교본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 1968년 6월 1일

통권 제35호

발행인 : 배 일 문

편집인 : 홍 무 광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T. S. D.)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전화 ㉞ 3995

서울 광화문 우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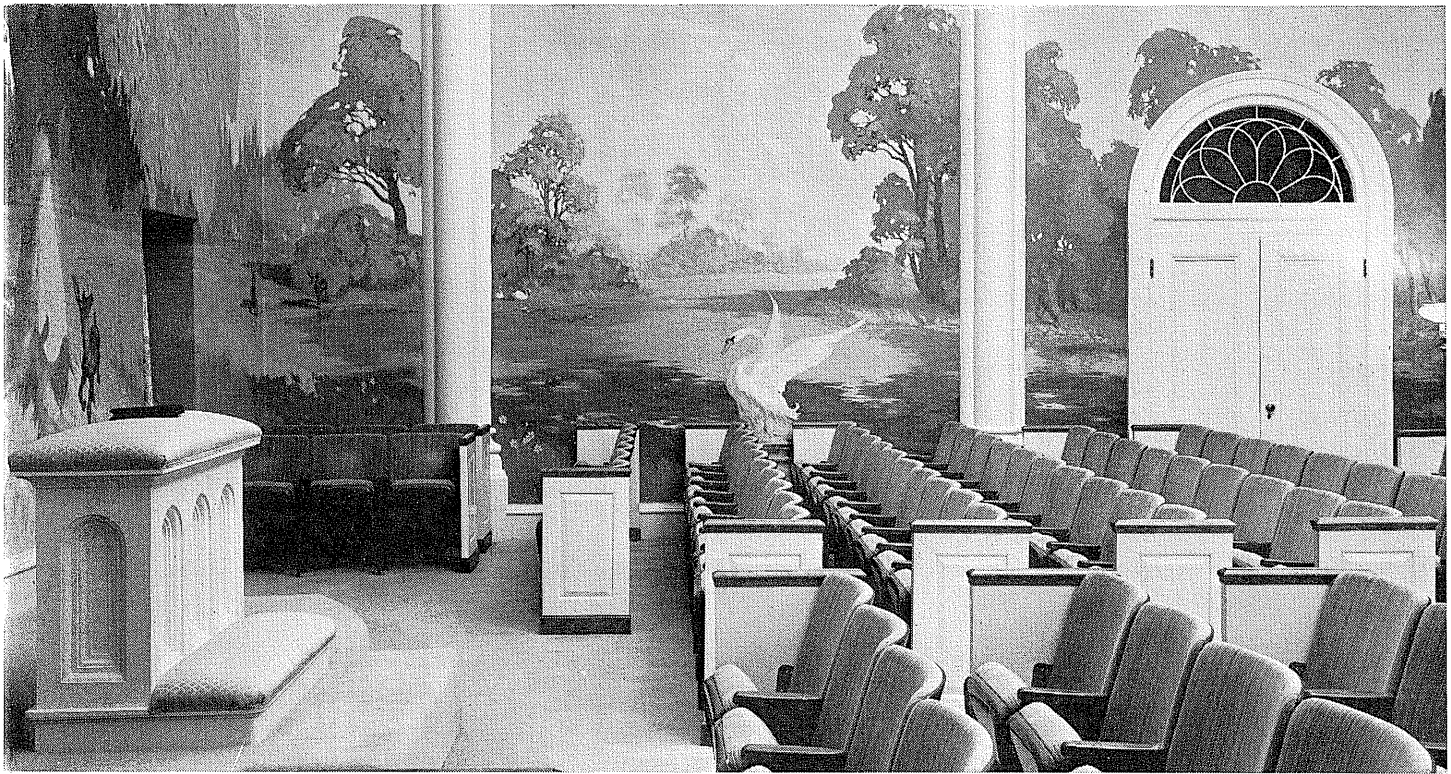
사서함 210호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 신전의 목적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스위스 신전 헌납식에서 하신 말씀과  
기타 자료에서 수집한 내용



성 요지 신전의 가든 룸(Garden Room)

메스 콤에 관계된 사람이거나 일반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질문해 오는 한가지는 “당신들의 신전과 다른 건물은 어떻게 다릅니까?”라는 것이다. 교회의 회원은 누구나 다 아는바와 같이 신전은 비밀이 아닌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하기 위하여 짓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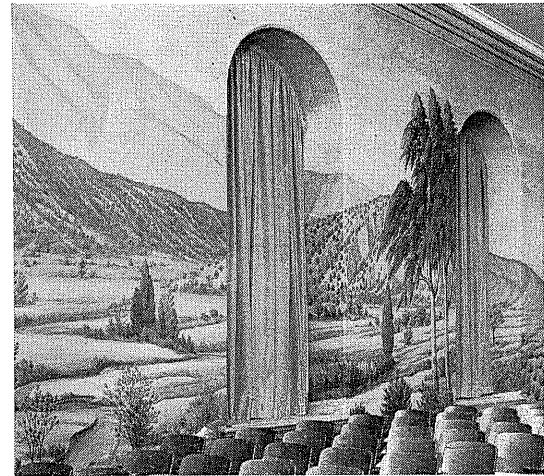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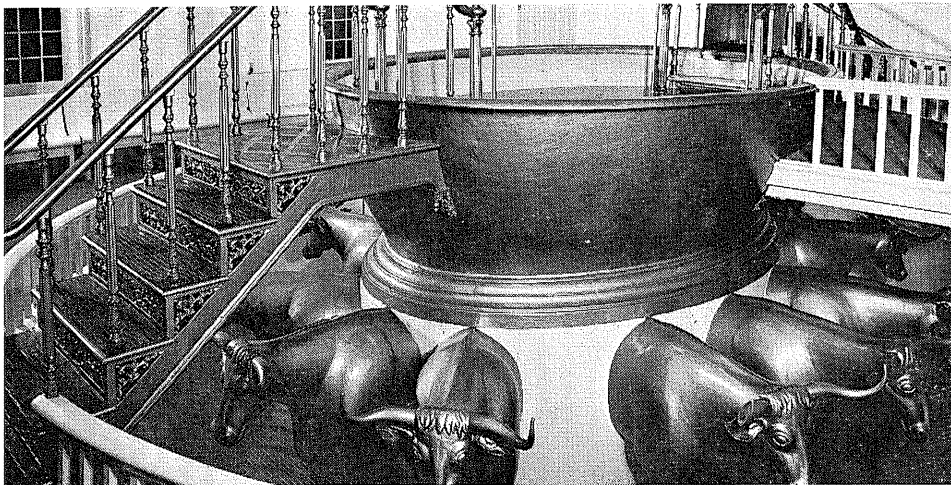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두드러진 한가지 특징은 그 의식과 형식에 영원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대개 일반 결혼식이나 교회 결혼식에는 한쌍의 남녀가 “현세만을 위하여” 혹은 “사별할 때까지 만을 위하여” 결혼을 하더라도 그러나 사랑은 인간의 영혼처럼 영원한 것이어서 사람이 죽은 뒤에도 계속되는 생활이 있다면 사랑도 그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성있는 사람이면 거의 모두가 인간의 영혼 가운데에서 가장 성스러운 속성은 사랑이며, 이 사랑은 영혼처럼 영원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줄 때 의아해 하고 더욱 탐구하는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누가 어느때에 죽는



상좌·셀링룸(Sealing Room). 이 곳에서는 현세는 물  
영원을 맺어주는 결혼 의식이 집행된다.

중좌·쇠로 주조한 열두 마리의 소가 떠 받들고 있는  
형의 침례반.



하좌·성 조지 신전의 어셈블리 홀(Assembly Room)  
넓은 홀에서는 특별모임이 개최된다.

우·신전안의 월드 룸(World Room).



다 해도 사랑은 남아있게 마련이다. 만약 어떤 진리 탐구자가 영혼의 불멸성과 죽은 후에도 인격은 남아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랑도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우리는 내세에서 누구를 사랑하게 될까? 라는 또 다른 질문이 나오게 된다. 여러해 전, 남해를 여행할 때 남편과 동반한 미국인 부인을 만났을 때 그녀는 이 질문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죠”라고 대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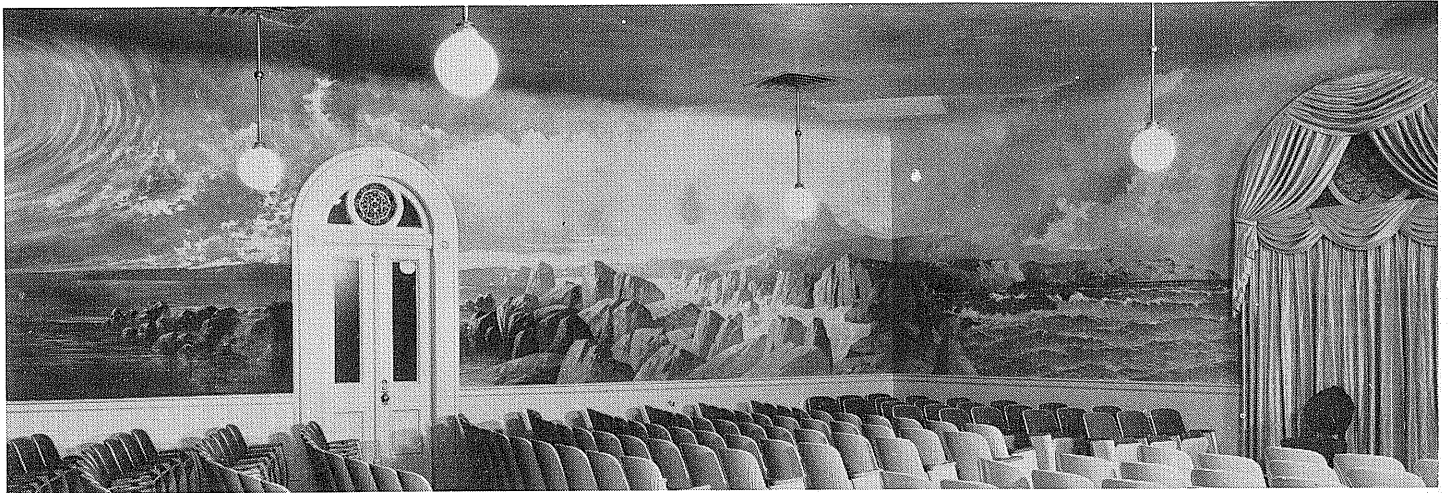
“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죠!” 라고 나도 대답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구세주의 명령이다. 만약 지상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속한 것들의 표상이라면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들을 알아보고 이 세상에서 그들을 사랑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다른 누구 보다는 나의 아내를 사랑한다. 나는 자녀들을 사랑한다. 나에게서는 동정심이 있어서 온 인류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욕망도 가

지상에 성신권이 회복됨을 계기로 교회는 이 권능이 다 시금 선택된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이 주님의 집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합당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결혼식을 집행하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 간에 영혼한 결합이 이루어지며, 이렇게 결혼한 가족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신전의 한가지 목표다.

여기에 또다른 목표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우심을 보거나 혹은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특정한 원리와 의식에 따라야 하며, 이 원리와 의식을 따르지 않고서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말씀을 믿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기 전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장본인으로 인정하고, 특정한 그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절대적인 말씀을 받아드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어떤 기본적인 의식에 따라



솔트레이크 신전의 크리에이션 룸(Creation Room). 다채로운 벽의 그림은 지구의 창조를 묘사한 것이다.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곁에 앉아서 병석에 있거나 혹은 죽어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보던 나의 아내를 더욱 사랑한다. 이러한 경험이 마음과 마음을 결합시키며, 이렇게 하여 결합된 마음을 죽음이 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색여둔다는 것은 훌륭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남편되는 사람들은 모두 저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처럼 아내를 사랑하며 부활에 임하여 새로운 영생을 맡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죽은 후에도 계속된다면 죽음이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를 빼어 놓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께서는 지상에 살아가셨을 때, 열두 제자들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베키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사랑도 영원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도 그의 말씀을 따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제 사실은 분명해졌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에는 구세주께서 영원한 계획을 말씀하신 귀절이 많다. 예를들면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는 —구세주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그를 따랐을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갖지 못한 것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것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다는 욕망에 충동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라고 자기의 간증을 하였다. 그런다음 계속되던 대화 중에서 주저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이까?”라고 물었다. 이에대한 대답으로 가장 괄목할만한 성귀는 “.....사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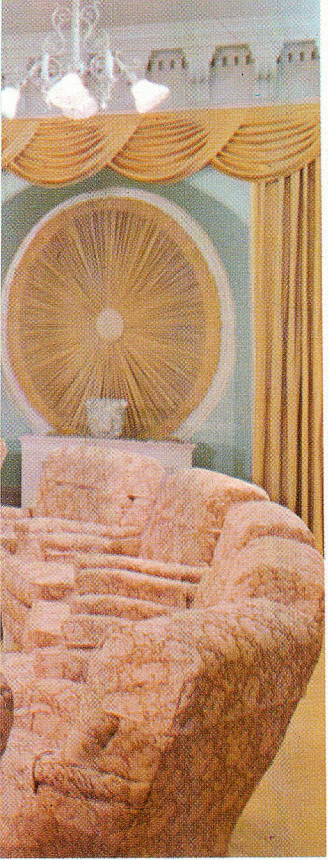
상좌: 솔트레이크 신전의 카운슬 룸 (Council Room). 대관장단과 12사도가 매주 목요일 아침 이곳에서 모임을 갖는다.



하좌: 만티 신전의 이와 같은 방에서 신전 결혼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의식을 행한 부부는 현세와 영원을 두고 결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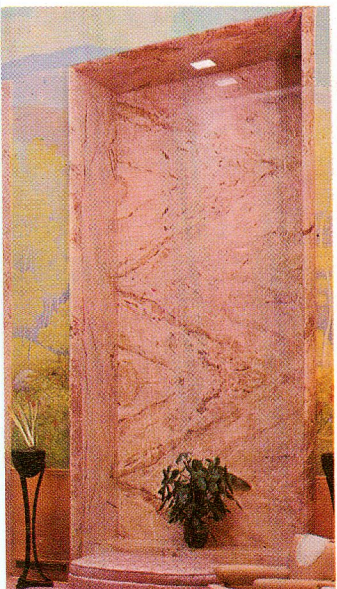
중간: 아이다호 쉘스 신전의 세레스칼 룸 (Celestial Room)





상우 : 솔트레이크 신전의 세레스찰 룸(Celestial Room). 찬란하게 장식된 이들 방은 인간이 구원의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 할 때 얻어 지는 승영의 상태를 표현한다.

하우 : 솔트레이크 신전의 테레스트리얼 룸(Terrestrial Room). 이 방에는 인간의 영원한 여행에 관한 사항이 소개된다.



# 왜 물론은 신전을 짓는가?

마크 이·피터슨  
(12사도 정원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세운 신전을 방문해 본 일이 있다던가 사진을 본 분 중에서 왜 그러한 건물을 짓는가 생각해 본 사람이 있는가?

이러한 신전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많은 건물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지은 건물 중에도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고, 어떤 것은 신전이라고 불리우는 것도 있으나, 물론 신전이 지닌 목적이나 기능을 베푸는 곳은 어느 곳에도 없다.

왜 말일성도는 이러한 신전을 세우며,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신전은 예배나 의례적인 목적을 위한 것인가? 왜 말일성도는 이와같은 일에 그같이 많은 시간과 노력과 경비를 들이는가? 여러 세기에 걸쳐서 우리들은 신전 건립 사업을 수행해 왔다. 그것은 두 곳에 신전을 세웠으며 여러곳에 신전을 계획했던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모두 미국의 중서부에 위치해 있었다.

서부로 온 이후에도 말일성도는 이 사업을 계속했고 그들이 도착한지 몇 해 가지 않아서 유타주에 4개의 신전을 완성했다. 그이때 아이다호, 아리조나, 로스 안젤레스, 알버타, 캐나다, 하와이, 스위스, 영국, 뉴질랜드와 오클랜드에도 신전을 세웠고, 유타주안에, 즉 욱든과 프로보에 1970년까지 두개의 신전을 완성시킬 계획이다.

교회는 신전 건립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 했다. 회원들은 평화로운 시절이나 혹은 가난과 고통에 찬 불우한 시기에도 신전 짓기를

그치지 아니 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랐기 때문에, 늘 경배와 감사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이런 것을 했다. 말일성도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이 이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는다. “완성”이란 것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의 복음에 관한 모든 것도 이 회복에 의해서 현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성서시대에도 고대 이스라엘인의 영적 구원을 위한 신성한 의식은 성소에서 집행되었다. 이와 같은 건물은 예배당이나 보통의 예배 장소로는 사용되지 않았었다. 그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세워진 것이었다. 그 사람들이 황야를 떠돌아 다닐 때는, 그들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장막을 사용했다. 이 장막은 “주님의 신전”이라 불리우며, 사무엘의 어머니가 기도하려 들어갔던 것으로 보아도, 당시에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 (사무엘상 1 : 9) 그들이 방랑의 길을 끝마치고 안정된 정부를 이루었을 때, 그들은 에루살렘에 자리를 잡아, 영화로운 신전을 지었다.

성서시대의 예에 따라, 오늘날에도 주님은, 신전이 이런 신성한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의식을 내려 주었다. 옛날에는 주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각 개인은 필히 두가지 일을 해야 했다.

- (1) 주님의 제명대로 의로운 생활을 한다.
- (2) 주님께서 참으로 인정하신 사람이 베푸는 구원 의식에 참



여한다.

이러한 의식 중에서 어떤 것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베풀수 있는 것도 있었으나, 어떤 것은 극히 성스러운 것이어서 고대에는 장막이나 성소에서, 후에는 커다란 신전과 같은 특별히 지은 건물에서 거행하기를 주님께서서는 요구하셨다.

이 엄숙한 의식은 신권 소유자가 집행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들어 갈 수 있었다. 인정되지 못한 사람이 주관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는 때문이다. 거룩한 의식은 온 세상에 완전히 알려지지 못했으며, 너무도 신성한 것이어서 선택되고 믿음 깊은 자만이 모든 의식에 참여했다.

복음이 말일에 회복된 것처럼, 신전 건립과 신전 의식도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되었다. 말일성도는 해의 영광은 다만 “천국 율법과 또한 모든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세상에서도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예언자에 의하여 알게 되었다.

1844년 4월 8일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중에, 그가 그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신전 의식은 아주 중요한 것이어서, “그 의식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신성한 장소를 준비해야만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교회정사 6권 318~320페이지)

그러므로, 신전이 없이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그 해결책으로 성도는 신전을 지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명령하신 바 있었다.

이에 발 맞추어 그들은 그 일을 시작했다. 첫번 것은 오하이오주 커트랜드에 세워졌다. 이는 1836년에 헌납되었으며, 오늘날까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다.

커트랜드 신전은 단지 예비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안에서도 성스런 의식은 많이 행해졌다. 그 신전에서 행한 주요한 사업은 후에 다른 신전에서 행해야 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신전은 그 후에 세운 신전의 양식과는 달리 지어졌었다. 예를 들면, 거기에는 침례반도 없었고, 결혼식이나 그의 다른 의식을 베풀 방도 없었다. 그것은 대개 예배당 비슷하게 지어졌었다.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커트랜드에서 쫓겨났을 때, 신전은 그들 뒤에 남겨졌다. 그들은 미조리주 잭슨 카운티에 정주하여, 거기서 신전 대지를 봉납했으나, 거기서도 박해를 받아 지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인디펜던스에서 파히 멀지 않은 미조리주, 파 웨스트에 본거지를 마련하고, 세번째 신전을 위한 장소에 기초를 하기까지 했으나 박해로 인해 다시 저지 되었었다.

일리노이주 남부로 옮겨 와서, 아직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지도하에 있을 때, 그들은 네번째 신전을 짓기 위해 기초를 하였으며, 예언자와 그의 형이며 축복사인 하이럼 스미스를 순교시킨 그들의 적에 의하여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전은 완성되

었다.

평원을 횡단하여 유타로 와서, 말일성도들은 불타는 열성으로 신전 건립을 다시 시작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기를 희망했다. 그들은 신전 의식이 구원에 필수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데 조급도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신전이 인간의 구원에 그다지도 필요하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고대에도 그랬었던가?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신전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신전은 잘 지어진 예배당 보다도 훨씬 훌륭했다. 신전은 신권 소유자만이 관리할 수 있는 성스러운 곳이었으며, 또한 그렇게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 “지성소”는 가장 신앙 깊은 사람에게만 지정되어 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보통의 예배 의식과는 상관없는 신성한 의식을 그곳에서 집행했다. 신전은 호기심에 찬 사람들이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공개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시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신전은,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시장터가 되어 더럽혀졌던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구세주께서는 심히 노하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신전에서 그들을 쫓아 내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마태복음 21 : 13)

말일에 지어진 신전도 그와 똑같이 신성한 것이며, 따라서 교회의 신앙 깊은 성도들에게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신전에서는 무엇이 행해 지는가? 대중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여러 가지 호기심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신전이 다 지어지면, 신전을 대중에게 공개시켜 수천명이 그안을 둘러보며, 건물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경탄한다. 그러나 건물이 헌납되고 신전사업의 일이 시작되면, 여행자를 구경시켜 방해 받는 일이 없게 된다.

신전을 헌납하기 전에, 방문객들은 이방 저방을 둘러 보며 거기서 행하여 질 일에 관해서 설명을 듣는다.

언제나 가장 흥미를 끄는 것은 침례반이다. 각 신전마다 열두마리의 돌 혹은 구리로 만든 황소 등 위에 놓여 있는 침례반이 있는데, 이는 다른 특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그 당시 주님의 지도 아래 신전 건물을 지시하신 대로 그 형태를 만든 것이다.

왜 신전에는 침례반이 있는가? 사람들은 아무데서나 침례를 받을 수 없는가?

산 사람은 아무데서나 침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전에 있는 침례반은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받는 대리침례를 위한 것이다.

죽은 사람을 위한 침례란 기독교의 교리인가?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우리는 선조들에 대한 것을 읽을 수



있으니, 저자는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하여, 죽은 자와 산 자의 구원에는 명확한 관계가 성립됨을 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향불을 피운다든가 혹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므로써 여러가지 형태의 행사를 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도 일종의 대리 행사였다.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돌아 가셨다. 그는 대신 희생물이 되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 : 16)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 : 5)

그는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 (마태복음 20 : 28) 그의 피는 우리들의 모든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다. (요한 일서 1 : 9~10) 그는 죽임을 당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요한계시록 6 : 9~10)

죽은 자를 위한 대리 행사란 성경과 기독교적인 습관에서 유래한 것이다. 만일 인간이 그에 참여하게 되면, 그들은 어떠한 종류의 의식이 하나님께 적합할 것인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분명히 인간이 생각해 낸 모든 형식이 다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며, 죽은 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어떤 다른 것을 계획하셨는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죽은 자를 구하기 위하여 산 사람이 하여야 할 바를 성경에서

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향불을 피우라고 했는가? 기도를 하라고 했는가? 무덤에 음식을 가져 간다든가, 저승에 가는데 쓰일 장비를 관에 함께 넣으라고 했는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 면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 방법,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예수는 죽은 자들을 가르치셨다. 구세주께서 돌아 가신 후에, 그의 몸이 무덤에 남아 있을동안 영으로서의 주님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서서, 전에 이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의 영을 가르치셨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셨다. (베드로 전서 3 : 18~20)

그리고나서 그는 우리들에게 이 설교의 의미를 일러 주셨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베드로 전서 4 : 6)

이 유명한 구절은 아래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

(1) 예수는 우리들과 똑같이 영과 육체를 지닌 인간이었다.

(2) 예수가 죽은 자의 세계에 가셨을 때에 비록 그의 영은 십자가에 못박혔던 살과 뼈의 몸에서 떨어지긴 하였으나, 그는 아직도 한 개인으로서의 평범한 나사렛 목수 였던 것이다.

(3)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들과 포함해서 모든 죽은 자들은, 예수 자신과 같이 영의 상태이긴 하나, 지성을 갖춘 인간 즉 개개인의 존재로 있었다.

(4) 이와같이 죽은 자들은 비록 그들이 영의 세계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육신을 갖춘 인간과 같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성과 감각을 갖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는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다.

(5) 예수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구원을 줄 기회가 되었다.

(6) 복음을 들었으면,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거나 받아 들일 수 있어서 “지상에서 행한대로” 심판을 받게된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살아 있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육체를 받았을 때, 율법을 지키고 침수로서의 침례와 같은 의식을 포함하는 여러가지 구원 의식을 받으므로써,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게해야 한다.

침례는 필요한가?

예수께서도 침례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셨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 자신도 침례를 받으셨다. (마태복음 3 : 15) 인간이 그보다도 의식을 적게 받을 수 있는가?

예수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이 했던 것 보다도 더 많이 침례를 주었다. (요한복음 4 : 1~2)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마가 : 16 : 16)라고 가르치신 분은 예수님으로, 신앙과 마찬가지로 침례는 구원에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나

타내셨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침례를 무시할 수 있을까?

만일 침례가 산 사람의 구원에 그렇게도 필요한 것이라면, 죽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덜 필요한 것일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일예를 들어, 향불을 피운다든가, 기도를 하는 등의 다른 어떤 의식으로 침례를 대신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과연 죽은 자들은 어떻게 침례를 받을 수 있는가? 초대 기독교인들이 죽은 자를 대신해서 침례 받았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그것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관습이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러하였다. 사실상 그는 이 초대 기독교인의 관습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증거로 삼았다.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뇨.”라고 말씀하셨다. (고린도 전서 15 : 29)

바로 이것이 죽은 자들을 위한 구원의 참된 기독교적 교리이다. 산 자를 위해서 유용한 의식은, 똑같이 죽은 자를 위해서도 유용한 것이다. 다른 것은 하나도 알려 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해서는 저런 일을, 산 자를 위해서는 이런 일을 요구하지는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나 산 자를 모두 똑같이 취급하시며, 죽은 자들이 영의 세계에 있을 지라도, 베드로가 말한 바와 같이 육체로는 사람처럼 동등한 심판을 받도록 하신 것이다.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 가르쳐 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의식도 그들에게 유효한 것이다.

침례란, 죽은 자든, 산 자든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것을 필요로 하는 의식이며, 죽은 자는 각자가 침례받을 도리가 없기 때문에, 살아 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하여 침례를 받아야하는 것이다.

말일에 복음 회복의 일부로서, 주님은 요셉 스미스에게 이 교리와 의식을 계시하셨으며, 이런 의식을 수행할 수 있는 신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당시, 성도들은 일리노이주 나부에 살고 있었다. 주님의 명에 따라서 그들은 그 도시에 신전을 세울 준비를 하였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첫번째 침례반을 세울 건물의 기초작업을 완성하는 것에 착수했다. 침례를 행하기 위해서 아름답고 영구적인 통을 만드는 것은 주의 뜻이었으며, 이러한 것은 결국 지어졌다. 그러나, 영구적인 건물이 지어질 동안에, 임시로 나무로 만든 것을 사용하여, 거기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지도로 죽은 자를 위한 성스러운 의식이 수행되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것이었으면서도, 베드로와 바울시대 이후로는 아무도 돌아 보지 않고 방치해 두었던, 가장 중요한 기독교 관습의 하나가 다시 시작되었다.

침례 의식 없이 어떻게 죽은 자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에게는 모든 사람이 똑같으며,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주님의 면전에서 구원되기 위해서는 똑 같은 조건에 처해야만 한다.

구세주께서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고 하시어, 하나님은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하였고, 모든 인간이 같은 빛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따라서 죽은 자를 대신해서 산 자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옛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대에서도 하나의 교리 의식이 되었다.

그러나 신전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 의식을 베푸는 외에 관심을 가져야 할 다른 일도 많이 있다. 그중 가장 일이 많은 곳은 인봉실이라고 알려진 곳이다. 각 신전에는 인봉실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이 보통 다섯 내지 여섯개가 있다.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근본 원칙이 되는 여러가지 의식을 행한다.

이 교리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란 만일성도에게 가중 귀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가족은 영원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남편과 아내는 단지 죽음으로써 그들의 결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결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부부 사이에 어린이가 태어나면, 그들은 사망과 부활을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가족식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가족 생활이 천국의 존재의 일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훌륭한 가정이 지닌 모든 덕과 축복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결혼을 단지 이 생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일성도가 믿고 있는 신조다. 결혼은 죽기 전에 이루어진다. 만일 결혼이 죽음을 넘어서 까지 계속될 목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거행되었다면, 합당한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첫번 결혼은 아담과 이브가 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는 사망도 죽음도 없었다. 또한 사망으로 인해서 어느 것도 구속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에 의하여 거행되었다고 믿는다.

그 후 아담과 이브가 주님에게 불순종 했을 때, 그들의 범죄는 죽음을 가져와 육체적 조건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그들은 죽게 된 것이다. 그러나 죽기에 앞서 결혼하였고, 또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거행된 것이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었다. 그것은 영원한 결합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담과 이브가 한 것과 같이 영원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결혼식이 영원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수행된 것이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본래 “백년 해로하라.”는 결혼은 일시적인 결합이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말한다. 죽을 때까지만의 결혼식을 올린 부부는 다만 그때 까지만 그 권위가 계속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들은 영원히 결혼할 힘을 가지고 있지않다. 그러나 부부를 함께 영원히 묶을 수 있는 권능이 인간에게 주어졌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시어, 그들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거나 인봉하면 하늘에서도 매이거나 인봉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다. (마태복음 : 16 19, 18 : 18, 요한복음 6 : 27, 로마서 15 : 28, 고린도 후서 1 : 22 에베소서 1 : 13, 4 : 30)

사도들이 그러한 권능을 행사한 적이 있었는가? 그들이 그들의 신권의 권능으로 한 모든 일은 영원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것이다. 누구든 침례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침례는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구원이란 영원에 속한 사랑이 아닌가?

그와 같이 신성하게 성임되고 권능을 부여 받은 사도들은 하늘에서 매일 것을 땅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그들이 땅에서 행한 행위는, 이 생에서 뿐 아니라, 그들이 죽은 뒤에 하나님의 하늘 왕국에서도 각 사람들에게 역량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주님의 계획이셨던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는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도 딸 권능을 그들에게 주신 것일까?

이 점의 중요성은 죽은 자를 위한 대신 침례의 원리를 다시 살펴 봄으로써 더 잘 알 수 있다. 베드로가 말씀하신,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 주어져, 그들이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처럼 살게 될



것이나 육으로는 사람처럼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처럼 사는” 데 있어서의 간격을 좁혀 주고, 육체로는 사람에게 주어진 규율에 따라야 함을 뜻한다. 산 자나 죽은 자나 구원에 관한 것은 동등한 근거에 놓이게 되므로, 이 생에서나 앞으로 올 생에서 다같이 신권의 권능이 필요한 것이다. 이로써 이 생에서나 저 생을 묶고 인봉할 수 있는 권능을 사도가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생긴다.

이 원리는 침례에 관한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에도 적용된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창세기 1 : 28, 2 : 24~25, 9 : 1, 7, 35 : 11, 히브리서 13 : 4)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이 죽어야 할 상황에 처하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첫번 결혼을 주관해 주셨다. 그는 남성인 아담에게 여성인 이브를 주셔서 이 땅에서 생육하여 번성하라는 계명을 주셨던 것이다.

물론, 이 첫번째 결혼을 수행함에 있어, 주님께서는 그 자신의 영원한 권능을 행사하셨으나, 그 후에 그는 이 권능을 사도들에게 위임하여, 그들에게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행위를 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영원한 권능은 침례를 영원하게 할 수 있는 특권이 되었다. 침례를 성임한, 같은 분에 의하여 성임된 결혼에 영구 불변성을 가져올 수 있는 권능이 없으면 법이 있을까?

영원한 결혼은 해야만 한다. 남편과 아내는 이 신권의 권능으로 영원히 함께 묶이게 될 것이며, 같은 방법으로 어린이들도 영원히 그들 부모에게 매이게 된다. 이와같은 가족은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죽음으로 해서 그들의 행복한 관계를 끝맺을 필요는 없다. 어린이들도 영원한 고아가 되지 않아도 된다.

침례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의 인봉이나 결봉 의식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한 가족 단위가 되게 해 주는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게 되고, 인생에서 가장 성스러운 사랑하는 유대가 깨어지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정말로 완전하신 분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늘 사랑을 지니고 계시다. 우리의 가족관계는 사랑위에서 이루어 진다. 이런 기반을 이룩하신 분은 그의 왕국에서도 계속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전에는 인봉이나 결봉 의식을 베풀기 위해서 소위, 인봉실을 두고 있다. 거룩한 방 안에서 신부와 신랑은 제단에 무릎을 꿇고, 영원을 위한 신성한 혼인 의식으로 인봉 혹은 결봉된다. 전에 인봉된 일이 없는 부모도 그들의 자녀를 그 방에 데리고 올 수 있으며, 그리하면 거룩한 신권의 권능에 의해서 그 가족은 영원히 함께 묶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죽은 가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으로 해서 그들의 결혼의 유대가 깨어졌다 해도 다시 함께 될 수 있는가? “백년 해로하라”는 말로 이루어진 결혼이 어떤 영원하고도 영구적인 기반위에 새로워 질 수 있는가? 이미 죽은 자녀들이 이 세상을 그만둔 그들의 부모에게 되

돌아가 그 가족으로 저 세상에서 다시 결합될 수 있는가? 땅에서나 하늘에서 매는 권능은 이 생에서나 저 생에서 다같이 효력을 보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 산 자나 죽은 자를 위해서 필요한 의식이 베풀어 진다. 그 권능은 “영으로는 하나님 처럼”살 사람들에게 침례라는 구원의 권능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산 사람이 받으므로서, 죽은 자를 위한 결혼의 인봉 의식을 베풀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대리 행사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아무라도 그에 참여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자면, 주님의 집은 질서의 집이다. 하나님은 혼돈하시지는 일이 없으시다. 모든 것은 질서로 되어질 것이니, 즉 성임 받은 남자나 여자라면 이미 죽은 친척을 대신하여 이 사랑의 의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다음 사항의 답을 들어 보기로 하자. 죽은 사람과 혈연 관계를 가진 사람보다 죽은 사람을 더욱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자는 누구일까? 누가 그들을 돕기를 가장 바랄 것인가?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모든 가족이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대주는 그들 자신의 족보를 만듦으로써 도울 수도 있다. 합당하게 확인된 사람을 위해 합당하게 이루어진 의식은 주님에게도 좋은 일이다. 그는 이러한 모든 일은 그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지어진 집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 집을 신전이라고 부른다.

왜 말일성도는 신전을 짓는가? 그들은 신전에서 그들 자신을 위한 인봉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영으로는 하나님 처럼” 살 수 있으나 육체로는 인간의 규범과 기회에 따라서 심판 받게되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대신 침례와 인봉을 받게되는 것이다.

한번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이 문제를 토론하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산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위하여 침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지어진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친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던 것과 똑같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따로따로 의식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교회정사 6 : 318~320)

그러면 이와 같은 행사는 현대에서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이면의 원인은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위대한 성서 예언자의 한 분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전에 마지막 날에 이 지상에 오실, 고대 예언자 엘리야의 오늘날의 사명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가 오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어서, 성경에서는 만일 그런 일이 없다면, 온 세계가 저주로 짓밟힐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말라기는 그의 저서의 마지막에 몇마디 말로 그 예언을 기록하고 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말라기 4 : 5~6)

이 예언에 관하여는 두가지 흥미있는 점이 있다.

첫째로, 그곳에는 명확한 시간적인 요소가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땅에 오리라는 것을 말라기는 말하고 있다. 우리는 바로 그날이 이르기 직전의 시기에 살고 있다. 시대의 표적으로 보아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면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하여, 엘리야의 오심도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눈점은 그의 오심은 아직도 미래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만일 그가 얼마전의 과거에 오셨다면 과연 누구에게 오셨느냐는 점에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예언에서 두번째로 중요한 점 즉 그가 오셔야 할 이유를 관찰해 봄으로써 이를 알아 보기로 하자. 말라기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하여 현재와 과거 세대간의 이해관계를 이룩하려는 엘리야의 사명을 분명히 나타내셨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오심의 그 분명한 목적은 살아있는 자녀가 그들의 조상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도 분명히 나타나 있는 그의 사명에 대한 목적을 통해서 그가 이미 오셨는지 어떤지를 우리는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문제의 답을 얻어 보겠다.

최근에 선조에 관하여 살아 있는 사람들이 폭 넓은 관심을 가진적이 있는가?

만일 우리가 아무리 살펴 보아도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없다면, 우리는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반면

에, 만일 광범위한 계보 활동을 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가 오셨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살펴서 만일 그의 사명의 결과가 이 점에 있는 것이라면, 그는 이미 오셨고, 그의 사업은 시작되었으며, 예언은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사실이란 무엇인가? 계보에 대한 관심은 이 점에 있는 것이다. 서방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선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의 선조들에게 돌려 지도록 하는 일이 현대에 와서 매우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인류의 족보를 작성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 수백 개의 단체가 최근에 와서 조직 되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들의 선조의 기록을 찾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애국적이고도 전통적인 많은 단체가 그들이 훌륭한 정치가, 군인, 개척자의 자손이라는 증거를 들어 합당한 회원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계보 잡지가 많이 발간되고 있으며, 많은 발행부수를 자랑하고 있는 어떤 신문은 계보란을 연재하고 있다.

현 세기에 들어와서, 그러한 자료에 관한 수십만 권의 책이 발행되었으며, 이런 종류의 인쇄물에 관한 대중의 요구가 격증되어 가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도시에 있는 공공 도서관에서는 특별히 족보과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껴 능숙한 족보학자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마이크로 필름을 통해서 수많은 기록을 복사하고 보존하고 있다. 이 마이크로 필름 기록은, 확대기라는 기계를 통해서 연구자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즉, 마지막 날에 임하시리라는 것이 예언에 의하여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 광범위한 계보 활동이 현대에 와서 시작된 것이라면 이는 더 분명해 진다.

특히, 조상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회명과 그 목적에 대한 사항을 큰 백과사전에는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자녀의 마음”을 상징하는 이러한 사업은 가계보나 그 혈통을 따져 보는 것 이외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선조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즉, 역사적인 건물을 보존한다든가, 선조가 전성기를 누렸던 장소에 기념비를 세운다든가, 무덤을 다시 만지고, 기념 공원을 만드는 등 다양하게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 학회는 대개 1890년 경에 이루어졌으며, 어느 것은 1850년에 시작된 것도 있다. 개개인의 관심을 구체화시켜서 조상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는 학회를 조직하는데는 여러 해가 걸렸을 것이다.

근래에 와서 족보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관심은 대단하며, 그것도 1844년 이전의 불과 몇해 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예언에 의하면) 1844년의 몇해 전에, 그당시 활발하게 퍼져 운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이 지상에 틀림없이 오셔야만 했다.

그는 그렇게 하셨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노아 시대의 홍수를 회상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베드로전서 3 : 20)한 구절이 있다.

분명히 1844년 이전에는 “몇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였다.

엘리야는 말라기의 예언을 성취하여 그의 자태를 나타내셨다.

1836년 4월 3일에 오하이오 커트랜드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건립한 신전에, 엘리야는 육체를 받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거기서 그는 물몬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높은 곳에서 온 권능을 위임해 주셨다. 이 시현에서 그는,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린다는, 다시 말해서 육신을 지닌 사람들의 마음에 그들 선조에 대한 이 계보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려는 말라기의 말씀을 성취하려 오셨다고 하였다.

엘리야가 나타나셨다는 것에 대하여 무슨 증거라도 있는가?

계보에 관련된 모든 단체, 도서관, 잡지, 계보기록, 족보의 각 페이지마다 적힌 모든 이름과 전 세계에 걸쳐 죽은 자들의 뒤를 열심히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오셨다는 것을 실제로 증거해 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 각자는 말라기가 전에 말한 바,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게 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성취시키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의 사명의 성과는 모두 우리에게 관한 것이다. 그 증거는 결정적으로 나타나 있다. 의심할 나위 조차 없다. 엘리야는 오셨다. 가장 위대한 예언의 하나가 성취되었다. 그것은 때의 표적을 우

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이며,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간증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와 천사의 성역으로 권능을 받아, 그들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조직하였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해 주었다. 그들은 침례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으로부터 신권을 성임 받았고, 그 권능으로 그들은 새로이 회복된 복음을 가르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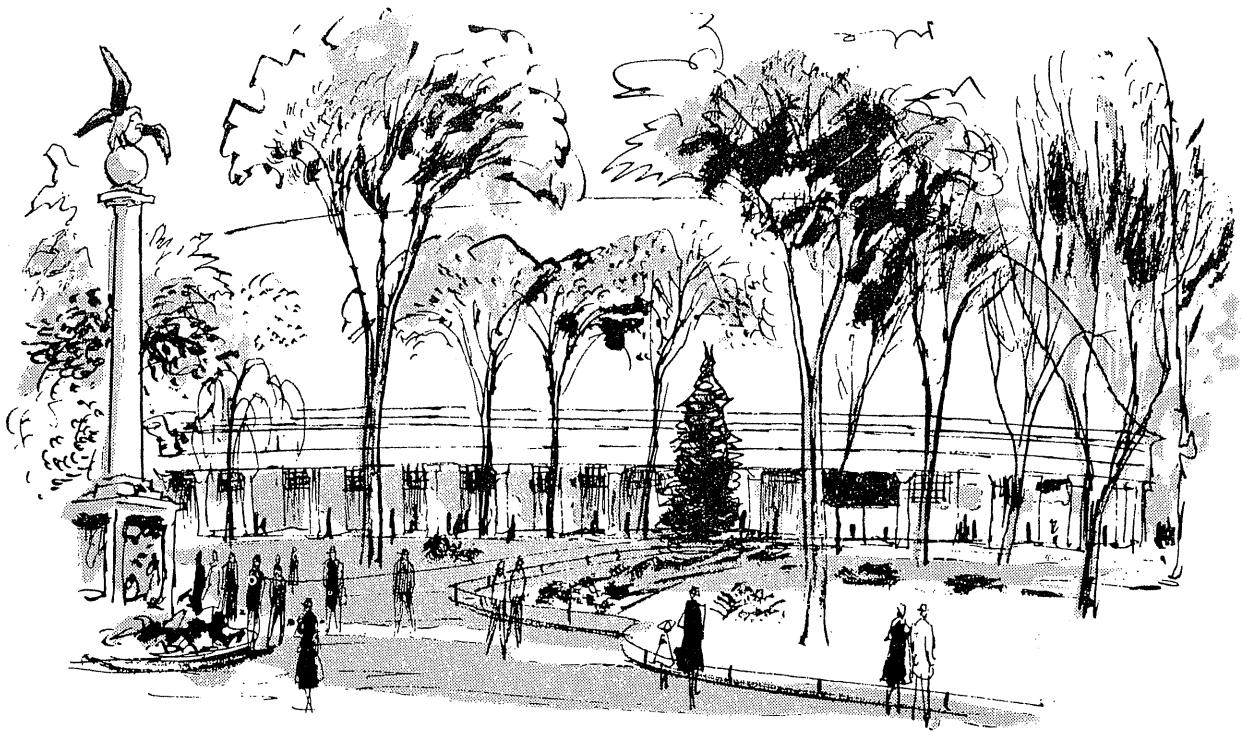
그들은 엘리야가 오신 목적과 그가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선조에게로 돌리는 그 배후의 원인을 말씀해 주셨다.

이 계보에 대한 관심은 구원의 계획중에 확실히 들어 있는 것이며, 기독교 종교의 근본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따라서 엘리야의 현대 사명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해야 할 일은 두배나 더 많아 졌다. 하나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을 확인해 주는 가계보와 족보를 연구해 보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신전을 짓고,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왕국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성스런 의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기 위하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다.

이 신전 사업은 전 세계적인 계보 조사와 일치하지 않고서는 수행될 수 없다. 이상의 두 행위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현재는 성도들이 수행하고 있는 주님의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발 맞추어 나가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물몬이 신전을 짓는 까닭이 있는 것이다.





# 신전을 향하여

존 에이·윌소 장로

(1872~1952)

작고 하신 십이사도



신전은 주님의 집 또는 주님의 가정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을 방문하실 때에는 의례히 그의 신전으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며 전세에 있었던 그의 자녀들이므로, 이 세상의 부모와 가족이 한 가정에 모여 사는 것 처럼, 주님의 가족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은 주님의 집에 함께 모여 살게 된다.

신전은 가르침을 받는 곳이다. 그러므로 복음의 원칙이 재고되며 하나님 나라의 심오한 진리가 풀리는 곳이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정신으로 신전에 들어가서 마음을 가다듬는다면 복음의 지식과 지혜로 마음이 부풀게 될 것이다.

신전은 평화가 깃든 곳이다. 이곳은 오직 영적인 일들만 생각하는 곳이기 때문에 외계와 소란한 세상의 근심 걱정을 떨어버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영적인 일에만 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신전은 의로운 생활을 하게하는 성약을 맺는 곳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축복과 온 인간의 선을 위하여 귀중한 복음 지식을 선용하겠다고 약속한다. 우리는 이곳에서 받는 간단한 여러 의식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사로 엮어지는 값 있는 삶을 영위하겠다고 굳게 결심한다.

신전은 축복을 받는 곳이다. 오직 충성을 하겠다는 조건 하에서 영원한 약속을 한다. 우리들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부모님과 같이 되어간다는 뜻의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새롭고 많은 신권의 권능을 받는다.

신전은 경건한 의식이 집행되는 곳이다. 인간에게 풀리지 않은 의문과 생의 큰 신비가 이곳에서 분명하게 밝혀진다.

- (1)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 (2)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 (3) 이 생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서는 영이 필요하며 이 영으로 인하여 기타 생의 모든 문제가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신전은 계시를 받는 곳이다. 주님은 이곳에서 계시를

주시며 사람들은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계시를 받는다. 지식과 도움은 직접적이든 혹은 간접적이든 모두 주님으로부터 온다. 비록 주님께서 이곳에 몸소 계시지는 않음지라도 성신 혹은 신권을 소유한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이곳에 머물러 계신다. 사람들은 이 성령으로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사업을 인도한다. 신앙과 기도로써 이 성전에 들어 오는 사람들은 모두 생활에서 오는 여러가지 문제에 답이되는 길을 찾을 것이다.

× × ×

신전, 주님의 집, 신권의 가르침을 받는 곳, 화평의 집, 성약의 집, 축복의 집, 또는 계시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곳에 들어가면 이 특권에 대한 깊은 감사의 념과 그곳에서 받는 영감을 계속 지니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은사와 축복이 있는 이 신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감독(지부장)에게 신전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다.

이곳에서 집행되는 제 의식은 신성하다. 이 의식은 신비로운 것이 아니다. 복음을 받아 드리고 복음에 따라 깨끗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신전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참으로 충실한 교회 회원은 모두 신전을 이용하고 신전이 주는 특권을 누릴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신전은 신전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면 누구나 성스러운 제 의식을 받을 수 있는 신성한 장소이다.

복음이 제시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신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침례, 신권성임, 결혼,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영원한 인봉, 산 자와 죽은 자의 엔다우먼트(특별은사), 복음 교육, 성역을 위한 협의, 복음에 속하는 기타 모든 것이 이곳에서 집행된다. 참으로 신전에서는 모든 복음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처음으로 “신전을 살피고 나온” 사람이 신전에 관한 것을 완전히 그리고 상세하게 이해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반복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신전 사업은 먼저 각자가 자신을 위하여 수행한 다음 여전이 허용하는 대로 자주 죽은 조상들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이 신전 사업은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문을 열며 살아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엔다우먼트의 본질, 의미 및 의무를 깊이 새겨준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 엔다

우멘트를 생생하게 간직함으로써, 영원한 축복을 받고 우리의 의무를 더 잘 이행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전 의식은 교리와 성약 124편 39절부터 41절에 포괄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러므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기름 부음, 너희 씻음, 너희 죽은 자를 위한 침례, 너희 성회, 레위의 아들들이 행하는 너희 제물의 기념, 하나님과 교통하는 너희 가장 거룩한 곳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너희 율례와 심판, 계시의 시작과 시온의 기초, 시온의 모든 도시의 영광과 존귀와 엔다우먼트, 이 모든 것은 나의 거룩한 집의 의식으로써 제정되나니, 나의 백성들은 이러한 집을 지어 나의 거룩한 이름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항상 받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이름으로 이 집이 건립되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그 곳에서 나의 백성에게 나의 의식을 나타낼 수 있게 할지이다.

이는 내가 창세 이전부터 숨겨온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관한 일을 나의 교회에 나타내 보이려 함이라.”

신전에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 옷을 입는데 흰 것은 순결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순결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권리가 없다. 또한 통일된 신전 의복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지와 부자,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 왕자와 천민, 이들이 모두 영의 아버지이신 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생활한다면, 신전에 나란히 앉아서 동등하게 귀한 대접을 받는다. 신전에서 받는 것은 영적인 이해와 영

적으로 합당한 자격이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주님 앞에서 평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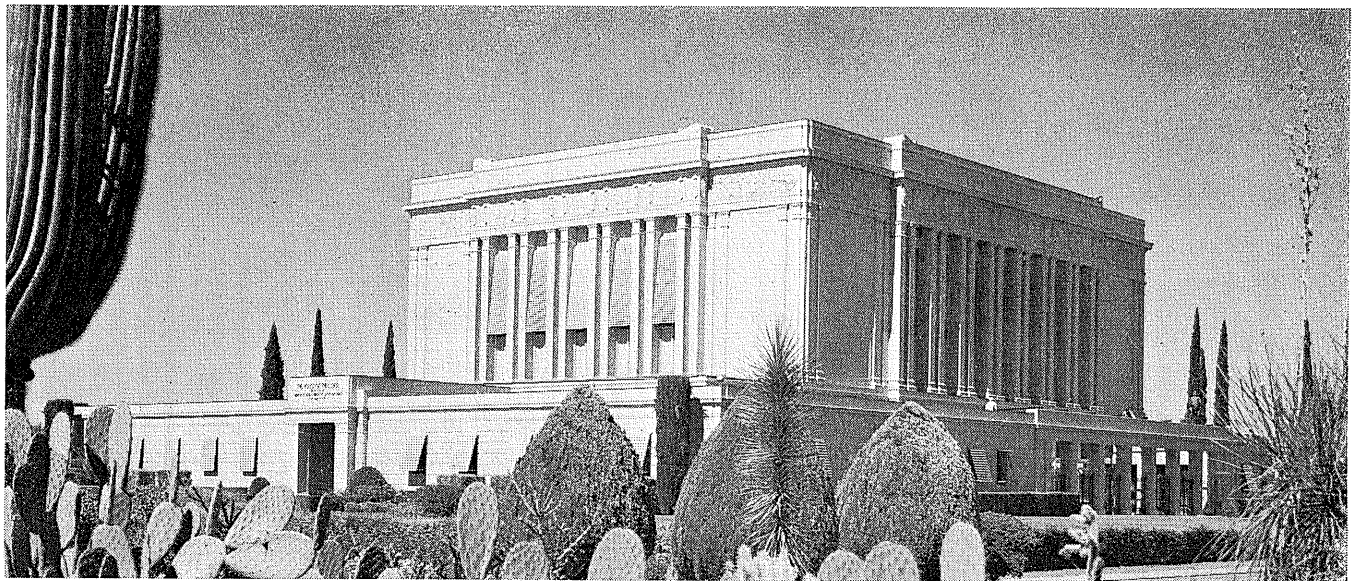
신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처음서 부터 끝까지 영광스러운 경험이며, 고무적이고 유익한 것이며, 또한 신전에 들어감으로써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일에 대하여 더 많은 이해와 힘을 얻어 가지고 나온다.

신전의 율법과 엔다우먼트의 성약은 아름답고 도움이 되며, 간단하고 쉽게 이해된다. 이 율법과 성약을 지키는 것은 단순하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인간의 영적인 발전의 기초를 놓는데에 이처럼 질서 정연하게 율법과 성약의 위치를 정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 사실 하나 만으로도 요셉 스미스가 인간 이상의 능력에 의하여 인도되었다는 우리의 신앙을 입증해 준다.

신앙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에 인도되어 신전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신전에 들어가는 날 참으로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고 장차 요구되는 모든 것에 도움이 될 빛과 능력을 받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된 복음을 받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특히 신전에서는 하나님의 사업이 말일에 그의 특별한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하여 다시 세워졌다는 확신이 커간다.

신전 사업은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즉 이 위대한 사업을 합당하게 함에 있어서 우리를 도우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모세서 1:29)





받모섬의 요한이 앞으로 탁칠 일을 예언하다 :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요한 계시록 14 : 6)

## 계 시

도일 엘. 그린  
(임프르멘트 이라 편집장)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지상의 대표자가 교통을 갖는다는 사실은 언제나 진실한 교회의 특징이 되어 왔다. 주님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걸으시면서 말씀도 하였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지상의 인간들이 해야 할 바를 지시하셨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이사야, 다니엘, 말라기등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이다.

예언자 아모스도 다음과 같이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 위대한 진리를 절감했음을 알 수 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아모스 3 : 7) 또한 솔로몬도 이 점을 강조하였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잠언 29 : 18)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버지의 인도를 부단히 바랐고 또 실제로 받았던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를 인정하고 그의 힘을 강하게하기 위하여 하늘로 부터 두번이나 말씀하셨다. 예수의 침례시에 하신 말씀을 변형산에서 다시 강조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태 3 : 17, 17 : 5)

예수가 돌아가신 후, 사도시대 이후에도 주님은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계속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열한 사람의 사도를 인도하여 결원중인 나머지 한 사도를 선택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다메섹의 사울에게 이르셨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서 백성의 안위자와 계시자가 되게 하셨다. 받모섬의 요한에게 많은 진리를 나타내 보이셨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명확하다. 지상에 참된 복음이 회복된 여러 차례의 경륜의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사역을 이룩하셨다.

물론경의 예언자 모로나이는 “내가 너희,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하며, 모든 것이 다하여 계시도 없고 예언도 없으며,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것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어 변하지 아



니하시고, 변화의 그림자도 갖지 아니하셨음을 우리가 읽지 아니하느냐?”(물몬서 9 : 7~9)라고 강조했다. 선지자 니파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도다. 우리가 받은 것으로 넉넉하니 더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어다. 보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인간을 가르치리이다. 내 교훈을 귀담아 듣고 내 권고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니, 반아들이는 자에게 더하여 주며, 넉넉히 가졌노라 하는 자에게서는 빼앗아 버리리라”. (니파이 이서 28 : 29~30)

예수는 베드로에게 계시의 반석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말씀하셨다. (마태 16 : 17~18참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계시로 세워졌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은 어린 소년이었던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던 것이다.

이 놀라운 시현을 본 이후로도 요셉 스미스는 비단 영감에 의해서 만이 아니라, 하늘 사자들의 직접 방문으로 계속적인 지시와 충고를 받았다. 영광스런 복음의 진리가 완전하고도 순수하게 회복된 것은 오로지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가능했던 것이다.

완전한 복음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되었는데도, 아직도 계시는 필요한 것일까?

아마도 이 혼란과 고난의 시대 만큼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가 필요한 때는 없었을 것이다. 세계의 긴장 상태는 높아가고 있다. 가족 관계는 약해가고 있다. 인간들은 매일 매일 자신을 갉아먹는 생활에 열중하고 있다는 점도 명백하게 나타나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또 다시 말씀하셨다는 소식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방송 기사라고 저명한 방송해설가가 말한 것이 얼마나 당연한 귀추인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중대한 시기에 공정과 사



주님이 다메섹의 사울에게 말씀하심 :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 : 3~4)



천사 성전의 사가랴에게 나타나심.

랑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방임하시리라고 생각하는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계시는 계속되고 있으며, 하늘 문이 닫힌 것도 아니며 주님 자신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대에 나타나셨으며, 그분의 참다운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며, 그 교회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예언자를 통하여 이끌고 계시다고 간증하고 있다.

간단한 증거를 들어보기로 하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박해하던 적들은 그가 죽기만 하면 교회는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무자비한 폭도들은 그의 생명을 앗아갔던 것이다. 집을 빼앗기고 쫓겨난 회원의 수효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폭도들은 이들이 광야에서 죽고 말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뒤를 잇도록 미리 준비하여 두셨던 부리감 영의 영감이 가득찬 지도력으로 쫓겨난 회원들은 마차와 손수레로 낮은 거리를 거쳐 1,300마일도 넘는 거리의 록키 산 계곡의 피난처를 찾아 여행했던 것이다.

그들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막으로 들어갔다. 예언자는 캘리포니아의 비옥한 땅으로 계속해 나가자는 청원을 듣고서 벌써 일, 이년 전에 시현으로 대 솔트 레이크 계곡을 보았다는 말로 그것을 뿌리쳤다.

땅이 단단하고 메말라 씨를 뿌릴 수 없음을 알자, 개척자들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끌어 물을 주었으니, 이는 관개 시설의 시초가 된 것이었다.

메뚜기의 재앙으로 농작물이 위협을 받자 갈매기가 나타나 전부 잡아먹었으니, 이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바 이적과 다를 바가 없다.

산을 파서 거처를 삼던 개척자들은 인디안의 습격을 감수해야 했고 기아, 가뭄, 질병등 갖가지 고난으로 시달림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이겨냈다. 영감받은 지도자의 역량은 곧 불모의 황야를 번영의 도시로 변하게 했다. 이 점에 관하여 부리감 영께서는 “우리가 이 곳으로 이동한 것이 나 개인과 관계된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이해하리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것은 전능하신 분의 섭리였기 때문이다.”(설교집 제 4 권 41페이지)

실업과 불경기의 악순환 속에서도 농장에 공업시설이 들어섰고, 교회 지도자들은 복지계획을 마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회원을 보살피고, 모든 사람이 겪는 어려움으로 생기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게 하였다.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주님의 지시를 수행키 위하여 대학도 각급 학교를, 후에는 종교 문제를 다루는 단체를 설립하였던 것이다. 유타주는 교육을 시킬만한 능력으로는 32번째이나, 교육 정도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의 과학적 연구는 담배의 위독성을 입증하고 있다. 교회는 130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 즉 담배는 사람에게 좋지 않다는 가르침을 가르쳐 왔다.

오늘날 우리들은 공산주의의 위협과 심각하게 대처하고 있다. 교회가 재설립되면서 부터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박탈하려는 것은 막아 그것을 수호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가 해결되어 조건이 좋아지자, 특히 교회 젊은이들은 여가의 시간을 갖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유혹도 더 많이 받게 되었다. 이를 막기 위하여 교회 내에 다양한 활동 순서를 마련하여 이에 참여하는 젊은이는 큰 도움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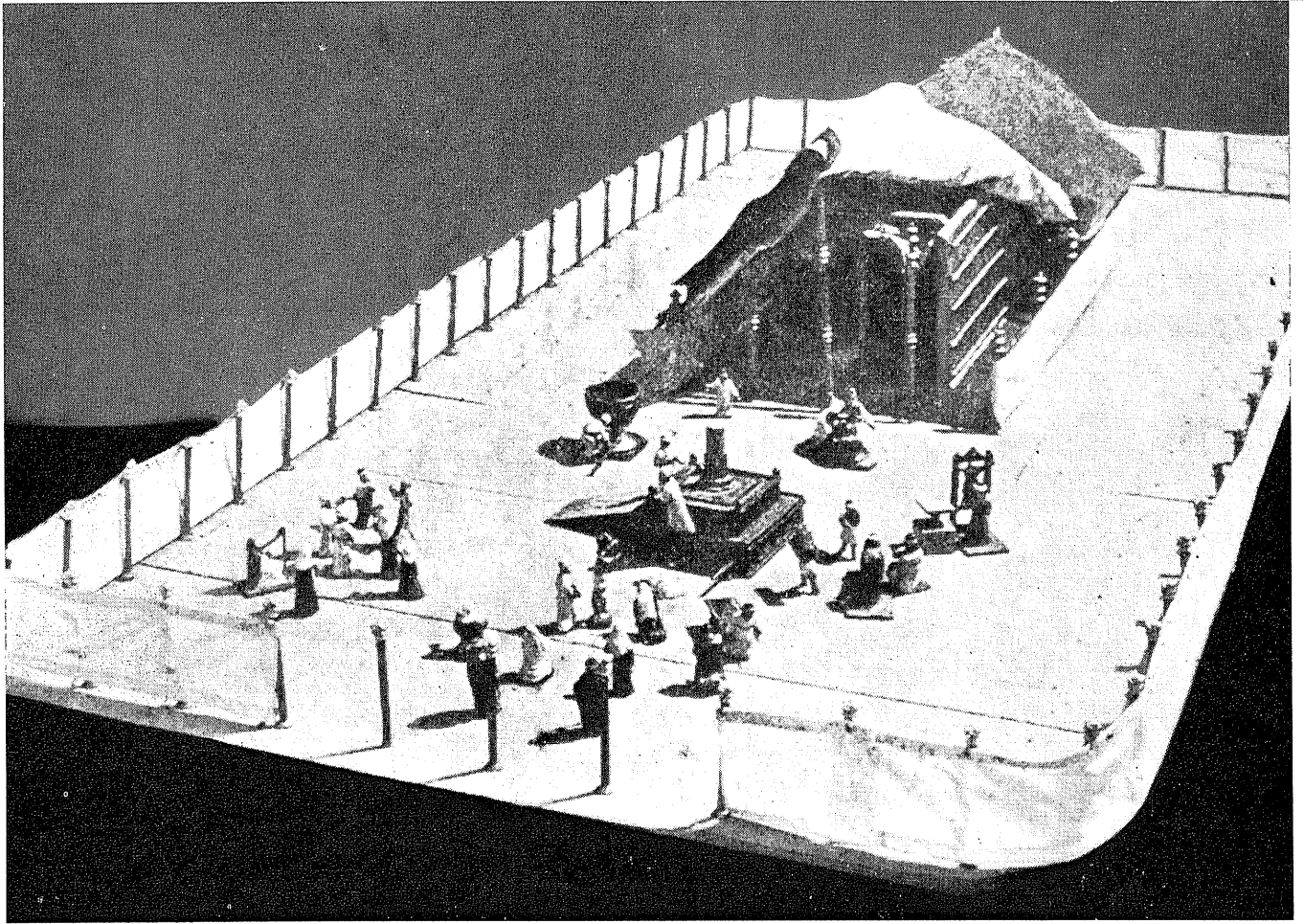
변하는 사조가 가정의 신성성이나 결속을 크게 위협하게 되자 지도자들은 주례적으로 가정의 밤 순서를 갖게 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이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가정에서 실패한다면 그 밖의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셨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64년 6월 67권 445페이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힘과 존속력에 회의론을 품어온 사람도 많다. 얼마 전에 어떤 작가가 “본래의 원리를 변형시키지 않고 현대를 사는 사람의 조건에 알맞게 가미 할 수 있는 신기한 능력”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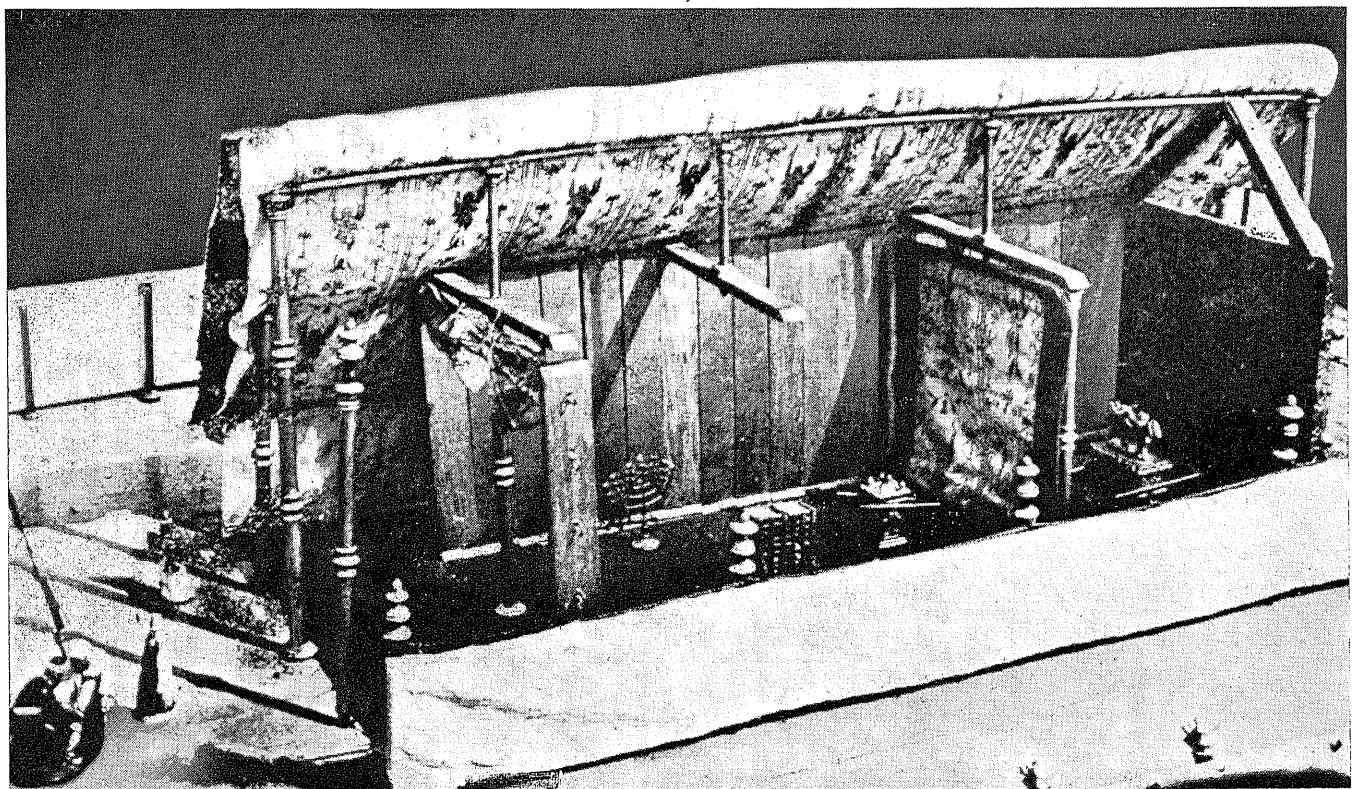
이에 대한 대답은 바로 계시다. 예언자에게 주어 교회를 이끄는 계시,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 각자의 생활을 안내하는 계시 말이다. 계시란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가름하는 특징이다.

보라 주의 사업은 놀라움고 위대하시며, 주님의 오묘하신 뜻은 그 깊이를 측정할수 없으며, 인간은 도무지 주님의 행하시는 바 만 가지 뜻을 다 알 수 없으니, 주께서 계시하여 보이시기 전에는 주의 뜻을 인간들이 알길이 없는지라. (야곱서 4:8)



# 고대 신전과 그 기능에 관하여

시드니 비. 스퍼리박사  
부리감 영 대학교  
구약성경 언어 및 문학교수





아주 옛날 그리스도 이전의 구약시대에도 신전이 세워지고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경전 특히 현대 경전을 주의하여 읽는 도리밖에 없다. 교리와 성약 124편 39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의 성스러운 집에 관하여 “.....나의 백성들은 이러한 집을 지어 나의 거룩한 이름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항상 받았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읽을 수 있다. 옛날에도 오늘날 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성스러운 엔다우먼트를 주기 위하여 신전이 필요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품안에 받아들여졌던 에녹과 그의 백성들을 생각할 때(모세서 7 : 69) 그들이 성스러운 신전에 들어갈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엔다우먼트를 받지않고,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받아들여 졌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교리와 성약 132편 29~37절에는 아담이 하

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받았던 축복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다. 주님께서 아담에게 “.....그리하여 저는 저의 승영에 들어가 자기의 보좌에 앉았느니라”(29절)고 말씀하셨으며 이와같은 말씀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주어졌다. (37절) 아브라함, 이삭 및 야곱은 지상에서 충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성스러운 엔다우먼트를 포함하여 복음의 모든 축복을 그들 위에 인봉했음에 틀림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엔다우먼트를 받을 수 있었던 신전이 어디에 있었느냐고 묻기도 한다. 경전에는 고대 족장시대의 신전이 어디에 있었느냐고 묻기도 한다. 경전에는 고대 족장시대에 신전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말씀은 전혀 없지만 그렇다고 신전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으며, 충실한 가정은 그에게 십일조를 바쳤던 것을보면(창세기 14 : 20) 멜기세벡은 실제로 교회의 우두머리였던것 같다. 아브라함도 멜기세벡에게 신권을 받았다.(교성 84 : 14) 아브라함 시대에 십일조를 바쳤다는 사실은 우리로하여금, 이러한 수입으로 예배하는 집을 건축하고, 위에서 인용한 바 “나의 백성들은 이러한 집을 지어 나의 거룩한 이름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항상 받았던” 신전을 세우거나 유지하는 데에 사용되었으리라는 것을 믿게 한다. 아브라함 서의 그림 제2번에 있는 그림에 대한 설명은 신중한 말일성도 독자에게 아브라함은 이 신성한 엔다우먼트와 엔다우먼트가 집행될 신전이나 신전과 동등한 것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확신을 준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전에 복음이 파레스타인에 널리 전파되었다는 사실은, 고대 성지에 완전히 조직된 교회가 있었으리라는 충분한 가능성을 나타낸다.(니파이 일서 17 : 35) 이러한 교회는 틀림없이 신전이란 영적인 기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테리고 나올 때에 처음으로 행한 한가지 사실은 사람들이 대 신권을 받고 의식을 받아서 “이로서 경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 것이었다.(교성 84 : 19~20)

“그 의식과 신권의 권위 없이는 경전의 능력은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 없이는 하나님 곧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며 보고서 살 수 있는 자도 없느니라.

모세는 이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의 자녀에게 쉽게 가르쳤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자기 백성이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힘썼으나”(교성 84 : 21~23)

모세가 구상했던 계획은 성스러운 엔다우먼트가 요구되

었다. 그러나 그가 비록 위대한 율법자라도 광야에서 신전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엔다우먼트를 집행하기에 합당한 장막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은 집안에서 의식을 집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너의 씻음이 내게 가납되겠느냐?”

이 일을 위하여 나는 모세에게 명하여 장막을 지어 광야에서 지고 다니게 하였으며 약속의 땅에 집을 짓게 하여 창세 이전부터 숨겨온 이 의식을 들어내게 하였느니라. (교성 124 : 37~38)

우리는 그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과 솔로몬의 신전이 세워질 때까지 파레스타인에서, 벨기세택에 관련된 여러 의식이 어느 정도로 수행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집행된 의식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분명해진다.

“다윗의 처와 소실은 내가 나의 종 나단과 이 권능의 열쇠를 지닌 다른 예언자를 시켜 저에게 준 것이다……” (교성 132 : 39)

나단과 다른 예언자들은 다른 어떤 곳 보다 장막과 같은 성스러운 장소에서 다윗의 처와 소실들을 다윗에게 인봉했으리라고 믿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다. 사사기 17~21장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벨기세택 신권에 속한 여러 의식이 장막에서 집행되지 않던 사사들의 시대가 펴진 것 같다. 그때에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더라”(사사기 17 : 6, 21 : 25) 이 때에는 아론신권에 속한 의식이 더 광범하게 집행되었을 것이나 이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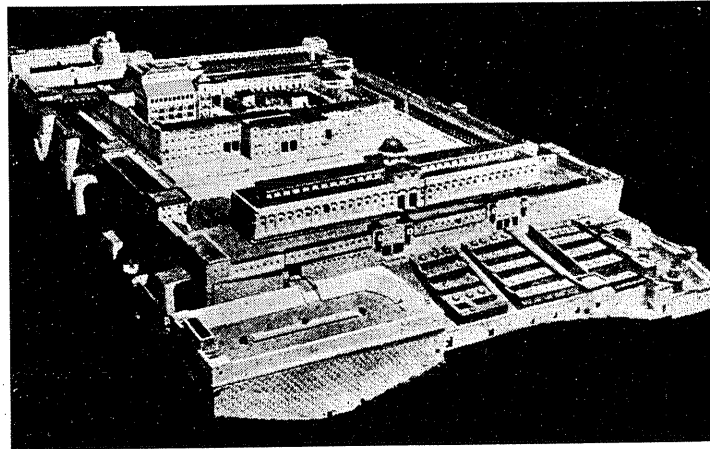
출애굽기 25~40장에서는 장막의 건축에 관한 기사와 장막에 따르는 여러가지 제한에 관한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건물은 일반적으로 “주님의 집”으로 알려졌었다. (창세기 34 : 26, 여호수아 6 : 24) 주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거나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훌륭한 자재로 장막을 지었다. 그곳에는 들짐승의 털과 가죽, 광야의 아까시아 나무, 홍해에서 나는 돌고래 혹은 그와 비슷한 생물의 가죽이 있었고 사람들은 천막 형식으로 된, 움직이는 이 성소에 자기들이 소유한 장신구, 금, 은, 놋쇠 및 린넨을 아낌없이 바쳤다.

원래의 장막은 길이 30규빗, 가로 10규빗의 사각형으로 되어 있었으며 동쪽 끝에 입구가 있고 높이는 10규빗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을 오늘날의 단위로 바꾸면 길이 13.5미터 넓이와 높이가 각각 4.5미터가 된다. 이 건물의 내부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이며, 서쪽에 있는 것은 4.5평방미터로서 이것을 지성소라 하며, 동쪽에 있는 것은 신성한 장소 혹은 성소라고 하며, 길이 9미터 가로 4.5미터로 되어 있었다. 이 성소의 동쪽 끝에는 현관과 비슷한 것이 있었으며 그곳에는 그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가 마련되어 있었다.

장막은 폭이 약 22.5미터 길이가 45미터 되는 밖뜰 뜰에 위치하고 있었다. 밖뜰 뜰 주변에는 은 뚜껑과 놋쇠 축이 달린 60개의 말뚝에 흰 직물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으며, 밖뜰 뜰의 동쪽 장막 앞에는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주: 우리로 만든 큰 대야)이 있었고(출애굽기 30 : 27~31) 아

헤롯의 신전의 광경 석 박사의 모형.



까시아 나무로 만든 번제단은 놋쇠로 싸여졌었다. 제단은 속이 텅 비어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이 여행할 동안에는 운반하기가 편리했다. 그것을 땅에 세울 때는 언제든지 흙으로 그 속을 메꾸고 그 위에 번제를 드렸다. (석박사의 장막 및 뜰의 모형 컷을 참조하십시오.)

장막에서 엔다우먼트 의식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하는 것은 추측하는 도리 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언약 계가 있는 지성소에서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교통하셨으며 모세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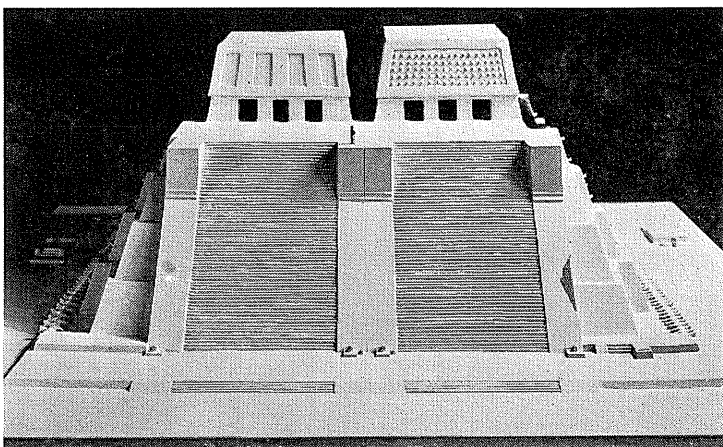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케 위에 있는 두 구름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출애굽기 25 : 22)

우리는 장막이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서 떠난지 이년째

되는 첫째 날에 헌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출애굽기 40 : 17) 그들이 방랑생활을 하던 때는 늘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 캄프가 움직여 질 때에는 언제든지 레위인들이 그 장막을 뜯어가지고 가서 새로운 정착지에 다시 세우곤 하였다. (출애굽기 40 : 34~38)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는 여호수아가 실로에 장막을 세웠고 이것은 사사들의 시대에도 그곳에 남아 있었다. (여호수아 18 : 1) 사울이 통치하던 때는 놉땅에 있었고 (사무엘 상 21 : 1과 마가복음 2 : 26을 비교하십시오) 다윗이 통치하던 때와 솔로몬이 신전을 건축할 때까지는 기브온의 고지에 세워져 있다가 (역대 상 16 : 39, 21 : 29) 솔로몬이 신전을 세운 다음 신전 안에 안치하였으며

아즈텍 시대의 테나이유카에 있던 신전의 모형



(열왕기 상 8 : 4, 역대하 5 : 5) 이전의 것과 똑같은 형태였으나 각 부분이 최소한 두배 이상 컸다.

솔로몬의 신전으로 알려진 이 주님의 영원한 집을 위한 자재는 대부분 다윗이 모았으며 (사무엘 하 7, 역대상 28 : 11, 29 : 9) 그가 건물과 건물의 비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집한 금속은 황금 십만 팔천 달란트와 일만 다릭, 그리고 은 일백 일만 칠천 달란트로 추산된다. 솔로몬은 이 금속과 다른 자재를 가지고 가장 호화로운 신전을 지어서 주님께 바쳤다. 이것은 7년 반 만에 완공되었다.

이 신전과 그후 이스라엘에 세워졌던 다른 신전에서 집행된 제 의식에 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장막에서 행해졌던 것과 동일했을 것이다.

솔로몬 신전의 모양은 본 기사의 커트에 나타난 스티븐

의 모형과 거의 비슷한 것이다.

열두 마리의 소가 떠받치고 있는 “눅쇠 바다” 혹은 칠패반에 관하여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솔로몬 신전 밑에 있는 것으로 죽은 자를 위한 칠패를 상징한다고 오해하고 있으나, 우리는 역대 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을 수 있다.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더라…… 그 바다는 전 우편 동남방에 두었더라” [신전의 동남쪽] (역대 하 4 : 6, 10과 열왕기 상 7 : 39와 비교하십시오.)

아하스왕 통치 때에 (기원전 736~721) 그는 그 바다를 눅쇠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었으며 (열왕기 하 16 : 17) 느부갓네살 왕이 기원전 59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는 (물론경 연표) 그 눅 바다를 깨트렸다. (열왕기 하 25 : 13, 예레미야 27 : 19~22)

학자들은 바빌로니아 신전에 이 바다가 만들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크게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바빌로니아 유수가 있는 후 바사 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기원전 500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파괴된 자리에 높이와 폭이 각각 60규빗 (27미터) 되는 신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하였다. (에스라 6 : 3, 조세푸스의 유물 XI : 4, 6과 XV. 11, 1을 비교하십시오) 그 신전 건축은 그들이 속박에서 풀려 (기원전 537?) 돌아온지 약 2년 후에 시작된 것 같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로 부터 받은 큰 저항을 위시하여 그외의 많은 난관 때문에 결국 그 건축을 중단하고 말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리오 왕이년에 (기원전 520년)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끝내라는 말씀을 주셨다. 학개의 예언은 모두 이 사업과 관계가 있다. 솔로몬 신전의 계획은 대개 성취되었으나 백성들의 궁핍으로 인하여 그리 넉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전의 신전에서 사용하던 기명중 이곳에서 다시 사용된 것도 많았다. (에스라 1 : 7~11)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팔레스타인을 침범했을 때 언약케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성소는 비어 있었다.

스룹바벨 이라고도 하며 때로는 제이의 신전이라고도 하는 이 신전은 다리오 왕 6년인 기원전 515년에 완공되었다. (에스라 3 : 8, 6 :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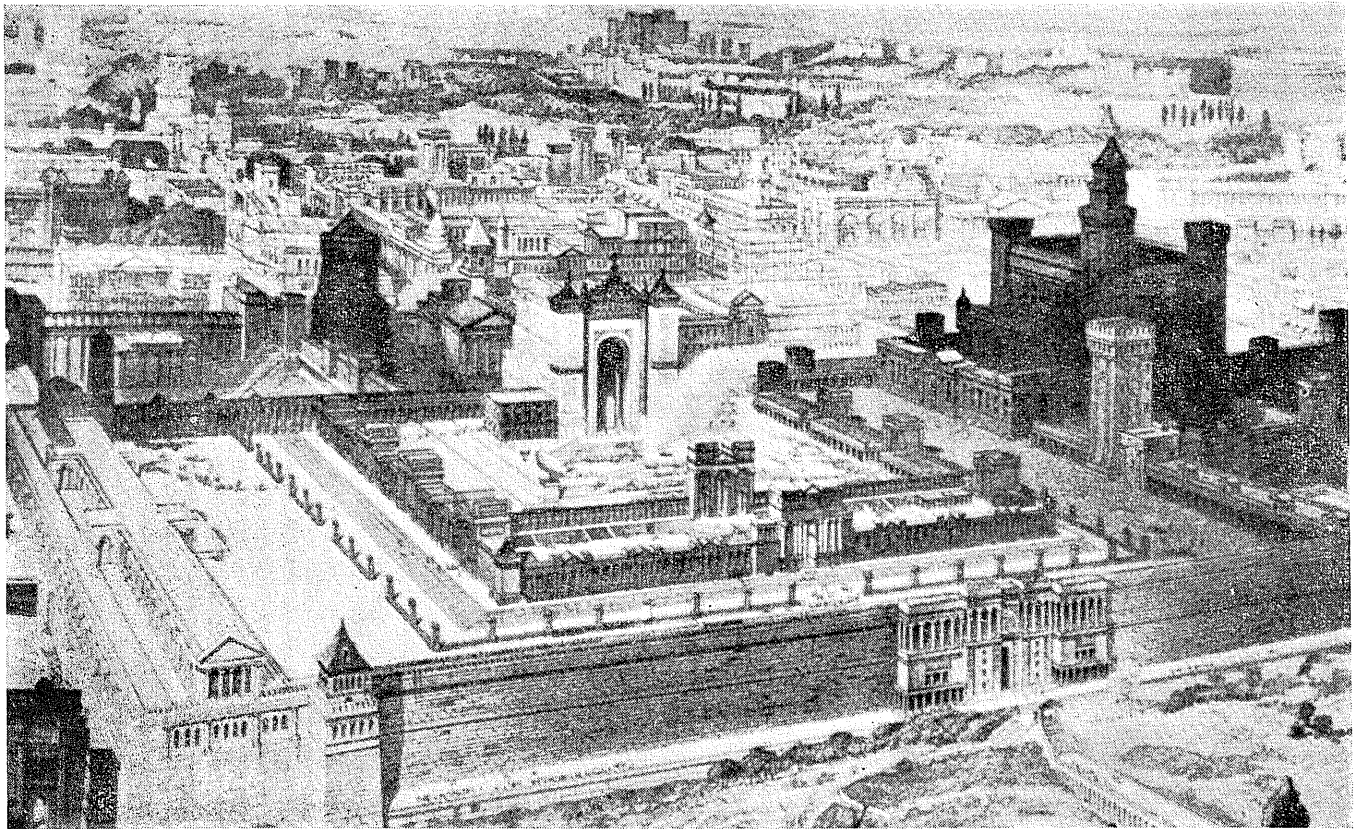
유대인들은, 제이의 신전이 헌납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세속화되어 신전에서 신성한 의식을 집행할 수 없게 되었다. 말라기는 (1 : 2, 2 : 17, 3 : 5~18) 백성들의 타락과 비열함에 대한 위대한 예언자들의 꾸짖음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신전이 헌납된 이래 이 신전에서 수

행된 제 의식을 얼마나 오랫동안 인정하셨는지 말할 수 없지만 그리 오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 예언자들이 사라진 후 약 400년 동안 신전의식 집행이 어떠한가 상세한 것을 알아보면 재미있다.

어떤 유대인들이 나일강의 엠 섬에 신전을 세웠다는 것을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다. 이 유대인들은 원래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로 아랍어를 사용했다. 그들은 그 섬에서 그들 고유의 풍습을 갖고 있었으며, 자치 정부를 가졌다는 기사가 파피루스에서 발견된다. 그들은 율법과 산재해 있던 다른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완전히 떠난 야후에게 헌납된 신전을 갖고 이 신전에 음식과 향과 번제를 드렸다. 또한

기원전 408년에 그 유대인들은 다시금 동족 유대인들에게 선물과 동봉한 청원서를 썼으며 이때에 비로서 신전을 재건하고 음식과 향품을 바치라는 허락이 내려왔다. 그러나 최근 까지도 그 신전이 실제로 재건되었는가 하는 것은 의문으로 남아있다. 에밀 지. 크레일링 박사가 편찬한 부르콜린의 아랍어 파피루스는 그 신전이 건립되었다고 시사한다. 말일성도들은 엠의 신전 건축자들이 야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다른 이교신들, 즉 아심-베델, 아나스-베델 및 케림을 섬겼을 때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충분히 알 수 있다. 엘리판틴에 있는 아나스는 아나스 야후라는 이름으로 야후에 예속된 여신이었다. 엠에게 서한



솔로몬 신전의 모형도. 스티븐의 재생.

그들이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었다는 파피루스의 기사가 있다. 파사왕 감비세스가 기원전 525년에 애굽을 정복했을 때, 애굽의 여러 신전을 파괴하였으나 야후의 신전은 남겨 두었다. 그런일이 있는지 훨씬 후 기원전 411년에 우상신을 섬기던(양의 머리를 한)제사들의 충동을받아 분격한 애굽인들은 유대 신전을 파괴하였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즉시 유대의 통치자 바고아스와 대 제사장 요한난과 다른 유대인들에게 원조를 청했다는 파피루스의 기사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응답은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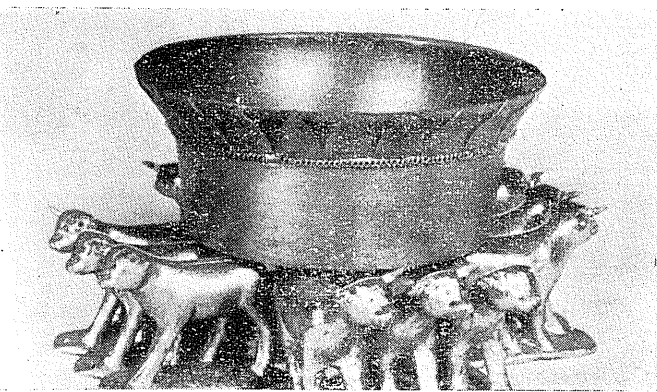
을 냈던 유대땅에 살던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도 이 사실로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새로운 신전은 헤롯 치세 18년, 기원전 20~19년에 착공되었으며, 헤롯 신전과 관계된 대단히 복잡한 여러 뜰과 건물은 기원 62~64년에 알비너스가 행정장관이 될 때까지 완성되지 않았다. 옛 신전 영역은 그 이전의 것 두배로 확장되었으며, 원래의 신전은 큰 흰 돌로 건축되었으며 그 내부의 길이와 폭은 솔로몬 신전의 그것과 같았으나 그 높이는 다락방을 씬에 넣지 않고 30규빗(13.5미터)

이 아니라 40규빗(18미터)으로 되어 있었다. 헤롯 신전은 옛날의 신전들 처럼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그 설비는 훨씬 더 화려했다. 지성소는 비어 있었으며, 베일로 성소와 구분되어 있었다. 독자들은 대 신전 구조에 관한 상세한 것은 요세푸스의 기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물론경은 히브리인의 다른 지파인 니파이인들이 신전의 용도를 알고 그 대륙에 여러개의 신전을 세웠다는 것을 알았다고 시사한다. 최초의 신전은 니파이와 그의 무리들이 불의했던 형제들과 분리된 후 니파이에 의하여 건립되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 신전은 솔로몬 신전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기사는 늦되판에서 입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니파이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나 니파이는 신전을 지었느니라. 내가 이 신전을 솔로몬 신전의 모양대로 짓기는 하였으나 솔로몬 신전에 쓰인 바와 같은 진귀한 물건들을 그 땅에서 할구 수 없었던지



솔로몬 신전의 “늦 바다”

라 솔로몬의 신전과 똑 같이 건립할 수는 없었느니라. 그러나 건축 방법은 솔로몬의 신전과 같았으며 지어진 솜씨가 대단히 훌륭하였더라. (니파이 이서 5 : 16)

니파이가 주님으로 부터 건축을 허락하는 특별한 계시를 받지 않고는 신전을 건립하지 못했을 것이다. 더우기 신전에 속하는 모든 의식이 계시되었음에 틀림없다. 니파이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랐지만 반드시 아론신권의 한계 내에서 산 자를 위한 의식만을 집행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니파이와 그의 추종자들은 복음의 율법을 지켰으므로 벨기세벱 신권에 속한, 산 자를 위한 모든 의식이 집행되었을 것이다. 니파이는 힐라맨서에 언급된 다른 니파이 처럼 인봉하는 신권 능력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다. (니파이 이서 33 : 15, 힐라맨서 10 : 7) 이와 같은 예언자들이 있는 동안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온전한 엔다우먼트

가 주어질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론 신권에 속한 제한 된 엔다우먼트가 집행되었을 것이다.

니파이의 동생 야콥이 이 신전에서 가르쳤을 가능성이 있으나 베냐민 왕은 제이라 헤물라 땅에 있는 다른 신전에서 설교했음에 틀림없다. (모사야 1 : 1, 18)

지니프 백성들은 조상의 땅에 돌아왔을 때, 니파이의 옛 성을 잘 개수했거나 새로운 것을 지었을 것이다. (모사야 1 : 1,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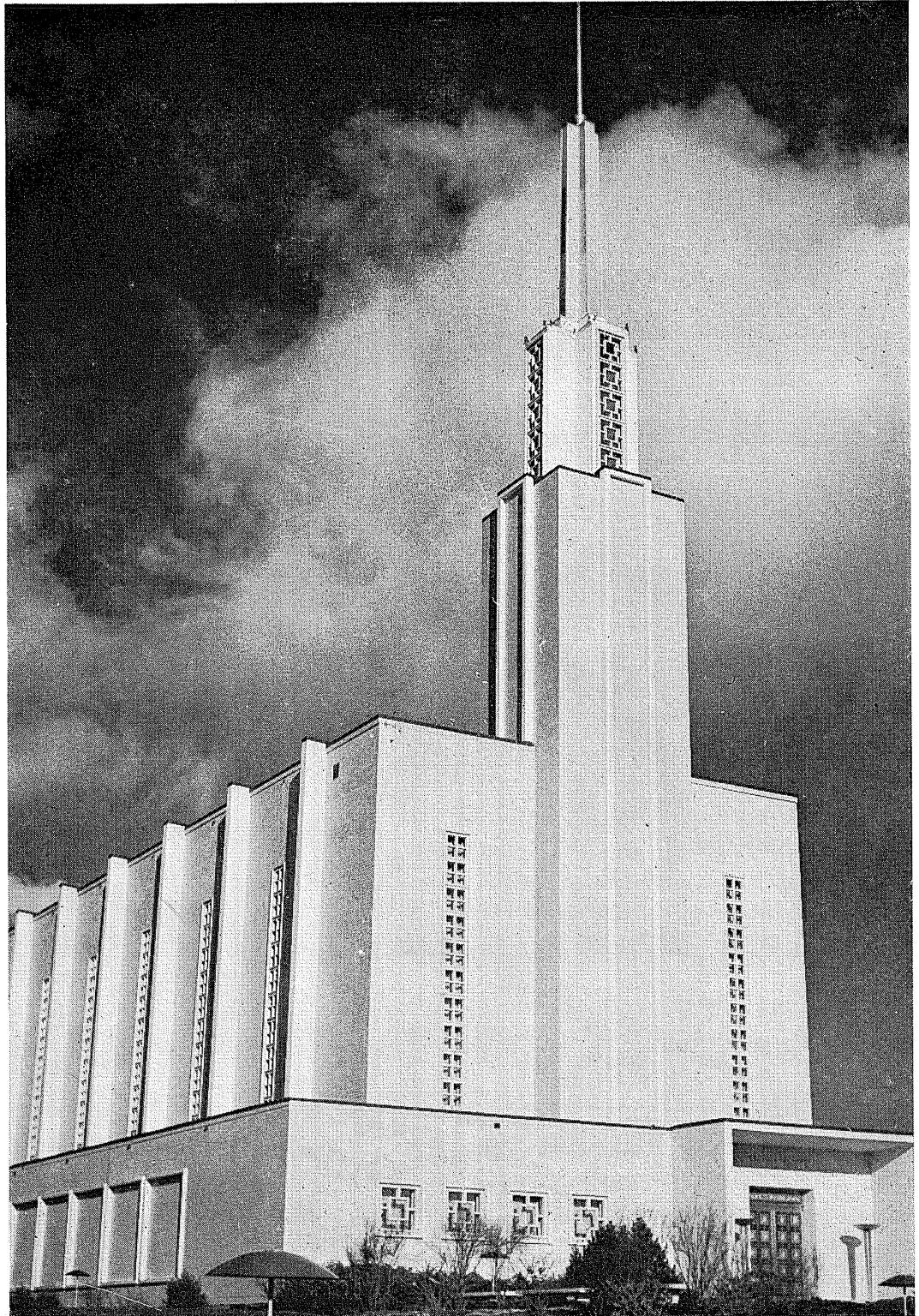
니파이인 신전에서 생겼던 흥미있는 사건에 관해서 연재, 어디였다는 말은 없지만 엠올레크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나는 엠올레크라. 나는 신전 벽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손가락으로 쓰신 글을 번역한 아민아다이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아들인 길도나의 아들이다. 아민아다이는…… 리하이의 아들 니파이의 후손이라”(엘마 10 : 2 ~ 3)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된 구세주께서 삼일간 계속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바운티풀 땅에 있는 신전의 주변에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나타나셨다. (니파이 삼서 11 : 1) 우리 주님의 부활 이전에는 파레스타인과 미대륙에 있던 신전에서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이 집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부활한 다음에는 니파이인들에게 이 사업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이 사실은 말라기의 3장과 4장에 인용한 것과 “무리들에게 설명하신 것”으로써 충분히 알 수 있다. (니파이 삼서 24 : 25, 26 : 1) 이리하여 죽은 자를 위한 의식에 관한 엘리야의 인봉하는 능력이 니파이인들에게 알려졌다. 우리는 이러한 의식이 그들이 의로웠던 약 400년 동안 신전에서 집행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들은 주님께서 설명했던, 엘리야에 관계되는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할 수 없다. 그 이유인 즉 이 경륜의 시대에 주어진 이러한 지식의 열쇠는 요셉 스미스에 주어져서 그 열쇠들의 기능을 잘 설명해 놓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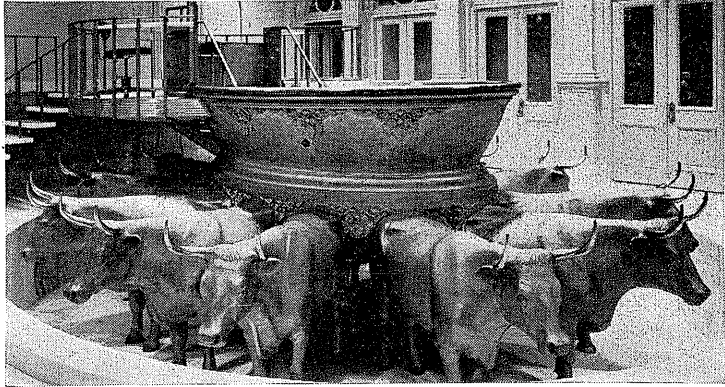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지중해 세계에 건립된 성전에서 집행되었음에 틀림없다. 고린도 전서 15장 29절의 죽은 자를 위한 침례 기사가 이 사실을 입증한다. 여하튼 고린도인들은 이러한 사업을 위하여 합당한 신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아마도 그 신전은 매우 작았을 것이며 그에 관한 기사는 전혀 없다. 기원 1세기 동안 초기 성도들이 건축하여 주님께 바쳤던, 이와 비슷한 다른 건물들도 다를 바가 없다.

# 말일성도의 결혼관



스위스 신전

## 부대관장 휴 비. 부라운



열 두 마리 소가 떠 받들고 있는 신전의 침례반. 폴트 레이크 신전의 것과 같다.

결혼 의식은 성스러운 것이며, 또 반드시 성스러워야 합니다. 성스러운 의식이란 말이 광범하게 쓰이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합당한 권능을 소유한 사람에 의하여 엄숙하게 행해지는 종교적인 행위 또는 의식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그것은 당사자간에 그리고 이 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지는 영적인 표식이며 결속, 즉 맹세이며 엄숙한 성약입니다. 다음에 인용하는 성구를 보아도 알겠지만 결혼이란 주님 자신이 제정하셨고 또한 신성화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창세기 2 : 18, 24)

예수가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의 해변에 도착했을 때 수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고, 그 중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관하여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마태 19 : 4~6)

주님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게 하셨음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이 식을 주재하셔서 결혼이란 제도를 신성케 하셨습니다. 정상적이며 건강하며 바람직한 상태이며,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결혼은 가정을 이루는데 중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관습이나 법률로서 엄격히 규제되는 인간의 제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율법의 강제성에 수반되는 계약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자녀에게 육체와 지상생활을 갖게 하며 결국에는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에 협조한다는 사실을 엄숙하게 받아들이는 종교적인 성약입니다.

세상에는 가장 높고 훌륭하고 바람직한 생활은 결혼의 성약이라는 문체와 그렇게 깊은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말을 빌리면, “육체적이며 동물과도 같은 관계로 더럽혀진 상태”에서 최고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런 교리를 설명할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잠언에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잠언 18 : 22)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편지로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 말하는 자들이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디모데전서 4 : 1~3)

교리와 성약에는 “진실로 나는 거듭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혼을 금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으로 부터 성임된 자가 아니니,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여 주신 것이니라.”(교성 49 : 15)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일성도는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좋은 것과 현세와 내세에서 가장 큰 행복을 얻기 위하여는 신전에서 결혼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신전결혼의 인봉 의식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과 같은 상태와 충만한 기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유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완전하거나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일성도의 결혼은 꼭 한 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신전결혼입니다. 이는 반드시 신전 안에서만 집행되어야 합니다. 영적 및 영원한 의식이 집행될 장소에 신전을 세워 주님에게 헌납하여 드립니다. 다른 교회의 목사가 집행하는 결혼, 법률가가 주재하는 일반 결혼, 기타 법이 인정하는 결혼이 있지만, 현세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결혼은 하나님의 신전 안에서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권능을 가진 합당한 사람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권능을 “천국의 열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은 신전 결혼을 통하여 영원히 임봉된 사람을 위하여 하늘 왕국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도덕적, 사회적, 생물학적, 영적인면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은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신 영원한 결혼

제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생활과 내세에서의 영생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하여 인간은 사랑을 주고 받아야 하며 봉사하며 희생을 달게 받으며, 일정한 책임을 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한복음 10 : 10)

그러나 사실상 결혼의 가치는 결혼하는 남자와 여자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결합하는 목적은 주님의 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세기 1 : 28) 합당한 결혼이라면 그 결혼 자체가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자연의 충동임을 이해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아이를 갖고 낳아 기르는 등 절차에 입각한 결혼 생활에서 완전하게 이행될 수 있으며 또한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분은 두 사람 사이에 생긴 자녀의 영체의 아버지되는 분이시며 전세에 존재할 때부터 영원한 원소와 영원한 영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일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결혼 관계의 성립에 있어 제삼자의 입장에 계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성스럽고 인정된 결혼 의식을 통하여 세상에서 자녀를 낳아 기른다는 것이 인간의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준다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위대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도 그 분이 얼마나 사랑을 영광되게 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 같이 사랑도 영원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와 축복은 앞으로 닥칠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관계된 이 영원한 사랑의 특질을 언제까지나 유지하기 위하여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인정하여 주고 성스럽게 해주는 의식 가운데 “백년해로”라는 제한이 쉬이게 된다면 곤란한 일입니다. 가족 관계와 부부 사이가 영원히 지속 되려면 결혼 성약은 반드시 합당한 자의 권능으로 현세와 영원을 위한 상태로 맺어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 자녀에 대한 의무와 그에 준하여 맺은 바 성약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우리들 없이 죽은 자들이 완전해 질 수 없다”는 말씀은 과거는 물론 미래에 까지 연결될 줄에 관하여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미 돌아가신 선조 보다는 살아 있어서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선조들의 죄를 없이하거나 사하여 줄 수는 없으나 자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그들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죄는 우리가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 왕국의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한 사람의 축복은 영원히 번성할 수 있는 특전이라 하겠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죽은 뒤에도 인간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에 하나님을 도울 수 있음을 뜻합니다.

영원한 진보에 관한 말일성도의 개념에는 영원한 발전 지식, 권능, 지혜의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필요한 특성과 자격의 영원한 발전을 전부 포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율법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계속하여 완전해 질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람, 다른 말로 바꾸면 적당한 상대를 발견하여 결혼한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미래를 약속하는 결혼관은 결혼이란 개념이 새로운 뜻을 부여해 주며 중요성과 존엄성과 영광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한 반려자를 선택하는데 한층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원한 계약에 들어가기 전에 남자, 여자 양측은 겸손한 태도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결혼에 있어서 종교적인 신성성은 크게 고취되어야 하며 두 사람은 결혼 이전에, 마음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여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목적이란 필연적으로 같은 종교에서 비롯된다고 하겠습니다. 합당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스러운 장소에서 성스러운 의식을 받도록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곳에서 지시를 받으며 성약을 한 다음, 하나님과 천사가 지켜보는 성단에서 서로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과 충실을 성약하게 됩니다. 확실히 이러한 결혼관과 의식은, 물론 이에 따른 이행 의무도 많지만, 결혼이란 제도와 인간 영혼의 구원을 영광되게 하며 또한 가정의 영속성을 증거하고 입증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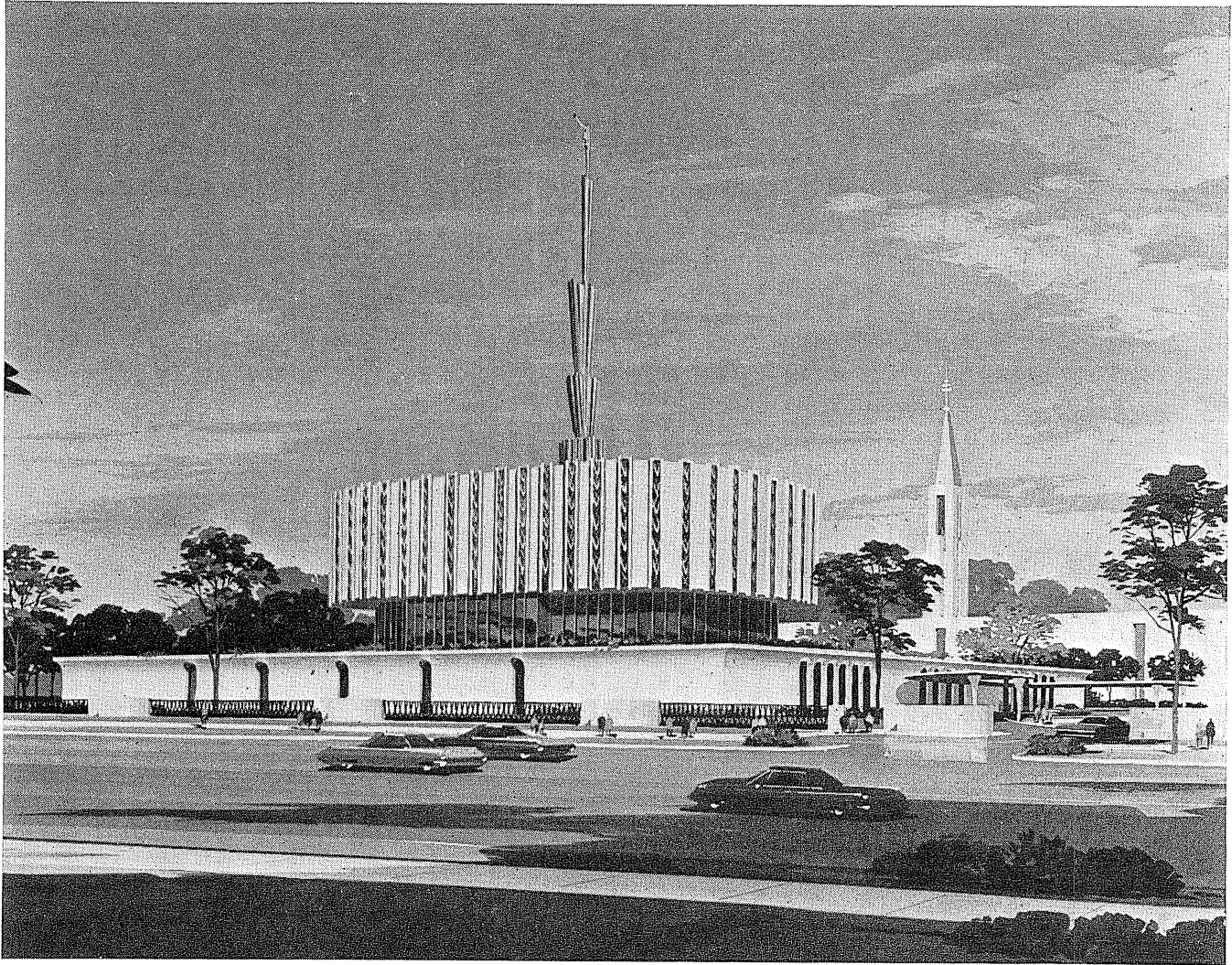
결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한 가운데 엄숙하게 약속하는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어려움, 시련, 실망과 때때로 닥치는 가까운 이웃의 죽음등으로 접철되는 생활이긴 하여도 이 모든 것을 명철하게 판단하여 끝까지 참고 견디는 신앙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반려자로서의 조건과 의무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이 최초의 시작이 실패했을 경우에 거의가 다 실패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활동 분야에서 거둔 성공의 결과가 어떻게 영원한 성약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에는 해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가 성스러운 계약에 들어감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 또한 면할 수 없게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한 아내를 취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룸이 합당하니, 이 모든 일은 세상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의 창조에 따라 인간의 수로 가득 채우려 함이니라. (교성 49 : 15~17)





옥든 신전이 완성 되었을 때의 모형도. 프로보 신전도 이와 비슷하게 디자인 되었다.

## 아름다운 시온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찬송가 9장)

아름다운 시온 위에다	아름다운 도시를 세우리
아름다운 하얀 진주문	아름다운 신전은 주의 빛
갈보리 산에 죽으신 주	나 위해 진주문 여시네.
시온 시온 사랑스런 아름다운	시온 우리하나님 성일세.

아름다운 시온 위에다	아름다운 도시를 세우리
아름다운 하늘 빛 속에	아름다운 흰 옷의 천사가
아름다운 노래 부르네	아름다운 합창대 있는곳
거기서 함께 찬양하며	경배를 구주께 드리리.
시온 시온 사랑스런 아름다운	시온 우리 하나님 성일세.

## 부록 제138차 연차 대회 말씀

역사적인 138차 연차 일반 총회가 4월 5, 6일과 7일에 걸쳐 100년이내된 태버나클에서 있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2명의 총관리 역원과 2명의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에 대한 지지가 있었다.

지난 해 10월 사도로 성임된 알빈 알. 다이어 장로는 대관장단의 일원으로 지지 되었으며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이던 마리온 디. 행크스 장로는 12사도 보조로 부름을 받았고, 하트만 렉터 2세와 로렌 씨. 던 장로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으로 각각 지지 되었다. 이로써 대관장단은 제1, 제2보좌외에 죠셉 에프. 스미스 돌프 비. 아이삭슨에 이어서 알빈 알. 다이어 장로가 대관장단에 포함되어 다섯명의 부대관장이 있게 되었다.

다음의 기사는 138차 연차 대회에서 말씀하신 대관장단의 말씀과 이번대회에서 새로히 총관리 역원으로 임명된 두분에 대한 소개이다.



### 살인 다음가는 범죄는 간음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다음의 기사는 1968년 4월 5일 금요일 오전 열시, 쏘트레이크의 태버나클에서 열린 제 138차 교회 연차 대회에서 하신 맥케이 대관장님의 개회사 전문입니다. 대관장님의 아들 데이비드 로렌스 맥케이가 대독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방송 및 텔레비존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이 순간 저에게는 오직 하나의 큰 소망이 있으니 이것은 교회에 계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방송망을 통하여 이 대회 순서를 듣는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주님의 영광 이 큰 총회가 주는 정신이 한결같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첫 모임 뿐만 아니라 이 제138차 교회 연차 대회가 끝날 때까지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저의 마음은 우리가 받은 축복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크신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영광스러운 진리와 커다란 가능성 내지는 기회에 대하여 더욱더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저는 교회의 회원들이 드리는 기도와 그들의 성실성과 신앙과 형제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이 총회에서 교회의 멧세지를 전달 함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가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저는 약 백여년 전에 개척자들이 신전 광장에 세운 이 역사적인 태버나클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통하여 제 말씀을 듣게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길 간구합니다.

4월 14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고 외쳤습니다. (고린도 전서 15 : 14~15)

사랑하는 구세주에 대하여 이처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영원한 진리에 매어놓은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을 기념해온지 1800년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영이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의 문을 지나 영생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멧세지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는 이 지상생활은 단 하루에 불과하며 지상생활의 끝은 삶이라는 해가지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잠에 불과한 죽음은 영원한 나라의 아침에 있을 영광스러운 깨어남으로 이어집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들의 형제를 어둡고 조용한 무덤에 누운 시체로 밖에 보지않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실을 단지 두말 “나사렛에 잠들었도다”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요한 복음 11 : 11)

부활절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사흘만에 실제로 무덤에서 일어났으며, 그의 영은 이 사흘 동안 영의 세계에 있는 다른 영들을 만나서 함께 지낸 다음 찢긴 육신으로 다시 돌아와서 육신을 소생시켰으며, 그후 40일 동안은 사람들 사이에 머물르신 다음에 영광스럽게 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승천 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의문과 불안으로 괴로워하는 영혼은 얼마나 따뜻한 화평을 맛볼 수 있었습니까?

초대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사도들이 맡고 있던 부활의 실제성 위에 놓여있었습니다. 사람들은 4000여년 동안 무덤 속에는 오직 생의 종말을 알려주는 것이 있을 뿐이라고 보아왔습니다. 사실 그곳에 들어간 수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 돌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땅위에는 어느 곳에서든지 빈 무덤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위대한 적, 죽음을 이긴 승리자의 능력으로 시체가 없어진 무덤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전혀 없었으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두려워 하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으로 찾아갔던 여인에게 “십자가에 못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고 한 말씀은 새롭고 영광스러운 멧세지였음에 틀림없습니다. (마가 복음 16 : 6)

기적이 인간의 한정된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이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고 인간은 영생 불멸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여하튼 인간이 부활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은 변치 않는 인간의 율법에 지나지 않으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인간의 지혜는 이 순간적인 사건을 막연한 신비의 세계로부터 밝은 이해의 세계로 인도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깝게 접해왔던 십이사도들에게는 부활하여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들 마음 속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을 목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사실 구속주의 음성을 듣고 그를 보고 만져보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도들의 슬픔은 형언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의 소망도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를 영원히 매장하게 되리라는 생각으로 슬퍼한 나머지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리라는 것을 여러번 확신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보고 그들은 놀라고 또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고 격려를 받았으나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잃고 두려움과 혼란으로 어쩔줄을 몰라했으며 오직 요한 만이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처럼 사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이 인간의 동요와 실망과 회의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했던 제자들이 확신이 있고 두려움을 모르며 영웅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갑자기 변한 이유는 무엇이였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는 계시가 있었으며 그분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그의 구세주로서의 사명은 유명한 작가의 “그의 모든 외침에는 최종적이며 절대적인 인이 찍혔으며 그의 모든 가르침에는 성스러운 권위의 인이 찍혔다. 죽음의 그림자는 다시 살아나시고, 영화롭게 된 구세주의 나타나심으로 생긴 빛에 의하여 멀리 사라져 버렸다”는 말과같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편견이 없고 그러면서도 믿기지 않는 눈으로 보았던 목격자들의 간증과 증거 위에 부활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합니다.

무덤은 예수님을 붙잡아 두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증거 세가지가 있습니다. (1) 제자들의 정성과 업적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 (2) 복음에 기록된대로 초대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3) 최초의 신약성서 저자인 바울의 직접적인 간증이 그것입니다.

때가 충만한 이 경륜의 시대 초에 14세 된 요셉 스미스는,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분을 가르켜 말씀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는 말을 했습니다. (요셉 스미스 2 : 17)

후에는 이 시현이 사실로 있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시현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 다. 또한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며 정죄받는 일인 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 다” (요셉 스미스 2 : 25)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초대 그리스도 사도들이 가졌던 부인할 수 없는 간증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영광스러운 시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어린양에 대하여 여러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라” (교리와 성약 76 : 22~23)

고대 예언자들이했던 나무랄데 없는 이러한 간증에 비추어 보거나, 이 세대에 주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시에 비추어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인간의 불멸성을 의심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 다.

“예수님이 팔리던 날 밤 도마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라고 묻자. (요한복음 14 : 5)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 : 6)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그러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위안의 원천이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영감이며, 구원을 주재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싶어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됩니다. 영혼의 불멸성이 진리임은 구세주가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예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웃과의 이상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져 한다면, 우리는 그 완전한 예를 예수의 생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귀한 소망, 고상한 선망, 생활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상은 무엇이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완전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도덕 표준을 찾는 데에도 나사렛 사람에게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인간을 온전하게 만드는 온갖 덕성은 그리스도 안에 모두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이 완전한 성격을 형성하는 덕성에는 **진리, 정의, 지혜 자비 및 자제**가 있습니다. 그의 생각, 말, 행동은 모두 신성한 율법과 조화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두 진리입니다. 그분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교통로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에 포함된 진리는 언제나 그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그의 이상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훈계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참으로 넓고 깊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해 하십니다. 사도들은 그분의 가장 단순한 말씀 중에서도 어떤 것의 깊이나 의미를 늘 깨닫지 못했으며, 율법사들은 그를 책잡을 수 없었을 뿐더러 그와 더불어 토론을 한다든가 논쟁을 해서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교사들도 그분 앞에서는 생도에 불과 했습니다. 짧으면서도 다사 다난했던 그의 생활기록에

나타난 행동은 모두 사랑과 자비에 찬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욕구와 정열을 극복했던 능력으로 구체화된 자제력이나, 자기를 꺾박하는 자들 앞에서 보여준 권위와 쿨한 태도는 완전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가지 덕성과 이 덕성이 포함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만약 교회가 인간을 참담게 만들지 못하고, 인간을 더욱더 도덕적인 상태로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한다면 이것은 광대극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교회의 진실한 회원으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회의 기본 교리입니다. 참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성격중에서 진리를 확립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실한 사람은 의로운 생활을 하며, 양심적이고 행하는 모든 일에 존엄성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책임을 수행하는 데 충실하며, 믿음성이 있고 의무수행에 부지런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진실하기 때문에 이웃이나 하나님께 대해서도 진실합니다.

**정의**에 대하여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는 정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형제를 부당하게 대우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장 가혹한 벌이 내립니다.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거늘 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으므로” (교성 121 : 36) 교회의 회원들은 늘 자기들이 받은 권위를 정당하게 활용하는 권고를 받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몫을 준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정당하게 되려면 정직하고, 공정하며, 편협되지 말아야 합니다. 정당한 사람은 정중하고 공손합니다. 사람이 정당하면서 동시에 불손하고 경박할 수는 없습니다. 불손하거나 경솔할 때는 자기가 받는 존경이나 공손함을 정당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인간은 정의의 소유하게 마련이며, 이것은 신성한 분의 속성입니다.

정의와 비슷한 **정직**은 교회의 신앙개조 십삼조에 맨 처음 언급되는 덕행입니다. 부정직한 상태로 사람을 참담게 사귄 수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하려면 남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에도 정직해야 합니다. 이것은 언행에 모두 정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진실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반쯤 진실한 것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래하는 일 즉 물건을 파는 일에서 뿐만 아니라 사는 일에서도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직한 채무는 시효에 걸리는 법이 없으며, 사람의 말은 계약보다 더 값있다는 것입니다. “참다운 정직한 인간이 요구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간의 것은 인간에게 돌려야 하는 것 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야 하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에서도 정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혜**—“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

르치라, 참으로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교성 88 : 118) 이것은 주님께서 이 세대에 선지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제명이며 그 의미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즉 인간의 영원한 구원은 그 사람의 지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때 더욱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릇 사람이 무지하고서는 구원 받을 수 없기”때문입니다. (교성 131 : 6) 지혜는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며 신중하고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하며, 무엇인가 이해하며 나아가서는 연구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현명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큰 바보가 되는 사람의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지식을 선용하는 방법**을 아는것이 지혜를 갖는 것이다”라고 스커피전은 말했습니다.

**자비**는 그 넓은 의미로 볼 때 도덕적인 미덕의 총화이며 기타 모든 미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는 생활로 이끌게 하는 자극제 입니다. 친절, 극기, 자기 희생, 용서, 자애, 사랑과 같은 행동은 성스러운 이 속성에서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형성하는 모든 미덕을 믿는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가족에 친절하고 진실하며, 자기 도시나 사회의 선을 위하여 적극적이며, 교회에서는 충실한 일꾼이 됩니다.

이상에 열거한 여러가지 미덕이 다 위대하지만 **자제력**이란 미덕 만큼 일상생활에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낮과 햇빛을 따로 분리시킬 수 없는 것처럼 자제력과 도덕적인 인간성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자제력이란 인간 본래가 가지고 있는 욕구, 충동, 정열, 애증의 감정을 다스리고 통괄한다는 뜻이며, 자기 극복 즉 나는 나의 욕구와 충동이 나를 위하여 봉사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내가 그것들에 굴복하지는 않겠다는 것 만큼 강한 의지력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없습니다. 이 미덕은 절제, 금욕, 용기, 불요 불굴, 희망, 침착함, 순결, 자립심, 관용, 인내, 순종과 순결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와 관계가 있는 교회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실제적인 가르침으로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매일 이 제명을 지키면서 생활한다면 가장 참다운 인간성이 개발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제력은 주로 욕구 충동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자기의 욕구와 충동을 완전히 제거하고 흥분제, 술, 담배, 마취제 기타 신체에 유독한 약에 빠질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을 보여 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처럼 자기의 정열과 욕구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온 젊은이 혹은 어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고등학생, 대학생 그밖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고 크게

놀랐습니다. 진심으로 경고하건대, 교회의 젊은이들이나 이 나라 백성들이 이와같은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고 만다면 그들은 남자다움 혹은 여자다움을 잃고 말것입니다.

몰래 혹은 그외의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욕구에 탐닉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정열을 극복해야 할 때 꼭 필요한 자질을 잃어 버리고 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성적으로 불순하다는 것은, 방종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인간성을 상실한 때문에 온 것입니다. 불순한 생각은 불순한 말을 낳고, 불순한 말은 불순한 행동을 낳게 마련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으로 볼 때 살인 다음가는 범죄는 간음이나 성적인 부정인 것입니다. 만일 교회의 회원 여러분이 정열에 대한 신념을 굳게 지키고 자체력을 통한 인간성의 개발을 꾀한다고 하면 이 죄로 물든 세상을 밝게 비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불안으로 동요되고 있는 회원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날에 대한 우울한 생각으로 걱정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는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오늘날 세계 사람들처럼 위험과 불길한 예감으로 앞날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그리스도가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미쳤을 때 그들의 앞날은 완전히 암흑속에 잠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고 안수 성임되었으며 베드로에게는 하늘 나라의 열쇠가 주어 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과 절망으로 어쩔줄 모르던 열두 사도 중 수 제자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그러하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디”라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 복음 21 : 15)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때에 비로서 베드로는 자기의 책임이 사람을 낚는 어부일 뿐만 아니라 양을 모으는 목자로서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야 비로서 그는 “나를 따르라”(요한 복음 21 : 19)는 신성한 명령의 뜻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이 변치않는 빛으로써 이 겸손한 열두 사람은 뒤이어 생의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과 그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언급한 다음의 기사를 읽었을 때 저는 한량없이 기뻐했습니다.

“과학적인 현상을 공정하고 편협되지 않은 마음으로 연구한 결과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분이 온 우주를 주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주재하는 힘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나는 일개 과학자로서 성서에 의하여 하나님과 우주에 대한 나의 의식이 분명히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우연한 기회를 통하여 성서를 믿게 되었고, 이 우주의 기원과 운행에 관한 성경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성서와 과학은 일치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서는 현명하고 적절하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와싱턴 대학교의 수학자인 동시에 물리학자이며 조지 페퍼다인 대학 물리학 부교수 엘. 체스터 렉스—1967년 11월 18일자 교회 뉴스)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과학의 분야로 돌아올 때는 언제든지 절대자의 의도와 율법과 질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관리하실 뿐 아니라, 그의 창조의 극치인 인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피듀 대학의 생물학 교수, 아슈버리 대학의 과학 및 수학 분과 위원장, 오크 리취의 핵 연구원 연구 관계자인 세실 보이 함만 박사— 1968년 2월 24일 테저렛 뉴스)

큰 기쁨을 전해주는 복음은 인류의 진실한 안내자입니다. 온 세상에 소요와 파괴와 죽음을 조장시키는 증오, 학대, 전제, 폭군 및 부정과 상반하는 이 가르침에 가장 가깝게 생활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푸른 창공의 해가 얼어붙은 땅을 녹이듯이, 인간이 지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 보다 높고 더 좋은 것을 갈망하는 애통하는 영혼들에게 안위를 가져다 줍니다.

인간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마가 1 : 37)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기심, 증오, 시기, 거짓말, 도둑질, 사기, 불순종 및 국가간의 싸움은 없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은 인격을 지니신 분이며 기도로써 가까이 가고, 기도로써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진리를 깊이 믿어왔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에 대한 저의 간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요한 복음 20 : 28)라고 했던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며 그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일이 없다”(사도 행전 4 : 12)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겸손하고 의롭게 자기를 찾는 종들에게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 땅위에 있는 그의 왕국에 관한 일에서 그분의 인도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의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선지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서서 교리와 성약과 기타 교회 성전에 기록된 계시를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지식은 매일의 생활에서 체험하는 것 처럼 현실적인 것입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울때는 다음날 아침에는 해가 떠서 온 누리에 광명을 준다는 것을 알고, 또 그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

며 그의 회복된 교회는 성스럽다는 사실이 매우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은 한때 지상에서 살으셨던 완전하신 분— 흠없는 인자를 그들의 이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특히 교회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려는 젊은이들을 축복하시고 이 젊은이들에게 신앙을 불어 넣어주시며 온 세상에 믿는 바를 크게 외칠수 있는 부모와 교사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즐거운 마음은 선을 행한다



부대관장 휴 비. 부라운

다음의 기사는 1968年 4月 6日 신권회 총회에서 하신 부라운 부대관장님의 말씀 전문입니다.

신권 소유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유명한 태버나클을 中心으로 각 예배당, 회의장소에 텔레비존을 매개체로 하여 이 시대에 있어서 최 다수로의 신권회 총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겸허한 마음으로 간증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으시는 선지자 곧 이 교회의 대관장 데이비드 오. 백케이께서는 교회의 모든 성도—젊은이나 성인이거나를 막론하고—들을 지도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특히 소년기를 지나 아직 성인기에 이르지 않은 사춘기 내지는 청년기에 이른 많은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남을 앞질러 가겠다고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하지 마시고 스스로의 미숙함을 뛰어 넘겠다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목표로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작업을 오늘 始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과 앞에 놓인 수많은 來日을 영원한 불사불멸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소망으로 努力하여, 영원을 두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의 삶을 갖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겠다는 불타는 열망을 가져 스스로를 다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개개인은 역사의 상속인입니다. 여러분 보다 앞서 간 사람들은 무한의 大地에서 지극히 작은 것을 發見했고 탐구해 냈습니다.

우리는 자주 젊은이들에게 젊었을 때의 웃음을 평생 간직하라고 당부합니다. 유모의 센스는 어려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서의 시도를 가능하게 하며 “땀과 눈물”이 다하지 못하는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17 : 22)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무섭도록 빠르게 변모해 가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공포를 느끼게 하고 복잡다난한 문제가 이 세상엔 충만해 있습니다. 즉 우리의 時代는 원자력의 시대요, 움직임과 폭발과 혁명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급작스럽고도 변이적인 힘에 의한 전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으며, 행운과 불운의 꼬리가 엇갈려 보이는 세상이 닥아 오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時代는 來日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게 하며 必要한 희생을 치루게 하며 이로 인한 보상과 무한한 機會를 누리게도 하고 급변해 가는 이 宇宙의 攝理에 적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합당하게 준비”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커다란 것에 기여해야 할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계속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人間의 地位는 그가 所有하고 있는 知識의 能力에 依하여 左右됩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바 준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교육이라 할 수도 있으며 그것은 자의적인 것이거나 타의적인 것이거나 간에 훈련을 쌓게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고등학교를 卒業한 後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當面하게 될 것이며, 또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열의와 결의를 갖고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한 문제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기와 의욕으로써 이 문제의 해결에 임할 때, 과연 人生을 어떻게 요리할 것이냐의 方向이 定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참으로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유혹도 있고 몰락의 길도 있으며, 지식을 미끼로 하는 위협과 타락에의 유혹의 속삭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험한 것에 가끔 유혹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짓되고 파괴적인

유혹에 늘 위협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의도에서가 아니라 다만 인류 공동의 적을 대항한다는 의도로 열변을 토한 잉겔소의 이야기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신사 여러분! 알콜은 이를 만든 사람, 파는 사람, 그리고 마시는 사람을 다 어떤 정도까지는 타락시킵니다. 알콜성 음료 곧 술이 독하고 불결한 筵에서 발효하여 죄악과 사망과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말라 없어질 때까지 이를 건드리는 사람 모두를 타락시킵니다. 생각컨대 음주로 인한 죄악을 대함에 있어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신사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의 물결, 자살, 두려움, 참혹함, 무지, 재난, 작은 어린아이를 누더기에 싸서 안고 절망에 가득차서 눈물 흘리는 아내의 하소, 재질을 갖고도 파멸당한 사람, 악마같은 술로 인하여 악몽과 더불어 싸워야 하는 수백만의 취객들을 음주로 인한 죄악과 연결하여 생각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옥이나 빈민촌이나 형무소나 단두대를 생각할 때면, 적어도 정상적인 이지와 판단을 가진 사람으로서 술이라고 하는 저주스러운 악마에 대하여 증오를 갖지 않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일부 대학가에서 상당히 성행하고 있는 마취제의 사용이 이롭다는 이야기에 유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약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나 알캡이 아주 풍자조로 말한것 처럼,

“마리주아나나 L.S.D.(환각제)는 마치 원자폭탄이 히로시마를 확대시킨 것 처럼 인간의 생명을 늘려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참 재미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로버트 엠. 훗친스는,

“저는 내일의 경제사정에 대하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인류의 도덕입니다. 인류가 당면하게 되는 가장 처절하고 무서운 위험은 바로 부패와 타락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어렵게 하는

잘못으로 인하여

높은 진리의 길에서 쫓겨 내리다.

영혼이 신음하고 피로워 하는 동안

과오의 값을 치루고,

멈추어 여행을 지연한 그만큼

목적지에 도달할 날은 멀어지다.

추수의 원리가 지극히 냉혹한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만 심는 대로 거둘 뿐입니다. 유독한 것을 사용하면 그만큼 목표 달성의 길이 멀어 집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교육은 세대 전체로 보거나 개인으로 보거나 늘 제일 중요한 임무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영속성과 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허가 받았읍니다. 그러므로 탐구하겠다는 발랄한 의지를 지니고 나아가 우리에게 관한 가능한 지식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관하

여 배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티끌만 한 무지는 물론 모든 적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가 지닌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흥미는 마침내 미국에 있어서의 첫번 성인학교—예언자 학교—의 기초를 쌓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쫓기는 가운데 신전을 건립하고 새로 회복된 福音을 가르치는 등 분주하기 이룰데 없었으나 주가 선지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권고하신대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것과(일반지식) 이미 있었던 일(역사)과 현재의 일과(현실) 곧 이루어질 일(예언)과 가사와 먼곳의 일과 전쟁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과 나라에 임한 심판과 하늘 왕국에 관한 지식에 관하여” 서로 가르쳤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폭 넓고 합당한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초기 물론 개척자들은 끊임없는 박해와 가옥의 박탈과 전답의 약탈에도 굴하지 않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교육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대륙을 횡단할 때도 여러 분야의 서적과 지도와 지침서를 잊지 않고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교육열의 한 예를 들어보면, 일단 이 주단이 유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설립한 테저렛 대학을 예로 볼 수 있으며, 후에 이 대학은 유타 대학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바로 다음엔 브리감 영 학원과 리스 대학 그리고 삼십여의 학원을 교회가 후원하여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학교와 학원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브리감 영이 칼지. 메이서 교수를 내세워 알파벳이라던가 구구표에 이르는 세세한 데까지 오직 주의 영에 의지하여 가르쳤으며 주의 영이 지시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관장단의 형제들이 교육에 관하여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대관장단의 말씀가운데는,

“교회는 오랫동안 교회의 성도와 특히 젊은이의 교육을 권고하고 강조해 왔으며, 대학 교육이거나 기타 특수 훈련을 쌓도록 해 왔습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급 상승하는 오늘의 사회에 있어서 교육은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으니, 이는 장차 안정되고 확실한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특수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이나 훈련을 요구하지 않는 직장은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으며, 얼마 안되어 완전히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고등학교를 마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계속하여 정규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취미, 능력 및 목표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의 선택도 역시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장차 어떤 분야의 교육에 임해야 하느냐를 결정하려면 역시 다른 사람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문

의하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오래 알아 오셨고, 인생의 성공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에 대한 식견도 갖고 계십니다. 부모님 만큼 자녀에 깊은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는 여러분을 무조건의 사랑으로 이끄시며, 여러분의 성공과 영광을 스스로의 훈장으로 여기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대부분이 부모님께 경제적인 모두를 의탁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협조를 구해야 할 분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지도자 가운데는 다방면에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기쁘게 여러분을 도와 훌륭한 조건을 들려 주실 것이며,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안대를 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미나 교사나 학원 교사도 여러분을 도와 교육의 의미를 이해하게 하고, 교회가 관리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의의를 깨닫게 해 줄 것입니다. 이 밖에도 특수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 교사 여러분이 여러분의 협조자가 되어 도와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더라도 결국 최종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의논한다든지 지능검사를 받아 스스로의 능력과 소질을 검토받을 수는 있지만, 자기의 최선을 구사하고 불굴의 불타는 의지를 가지며, 자기의 변함없는 의지를 지키겠다는 최후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계속적인 일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며, 여러분의 능력으로 일하는 중에 발전해 가면서 계속적인 소망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실업학교에 입학한다든가 그밖의 특수 학교에 입학하여 장차 대무역가가 될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림과 도기칠의 명수였던 브리감 영은,

“나는 교육의 중요성을 믿는다. 그러나 소년 소녀들이 그들의 손끝에 지니는 재능과 교육만한 것을 머리 속에도 지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업학교에서 도안, 전기, 농업기술, 비서 및 사무기술, 사진술, 계산기 사용법등의 다른 많은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그 과정을 마치고 소정의 허가증과 졸업증서를 받는데 필요한 시간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습니다.

군복무 기간중에 받는 특수 훈련도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전기, 중장비등의 특수 분야를 다루는 특수 학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 학교 및 학원의 프로그램이 유익하고 참된 것이기는 하나 과연 무엇을 선택하여 자기의 모두를 불태우고 소망하는 목표를 달성 하느냐는 신중히 생각하여 선택할 문제입니다.

성질에 따라서 어떤 직업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받아들여 월급을 주면서 자체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만,



대개의 경우 이러한 조건과 경위는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대학 정도의 교육은 반드시 졸업이 모두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졸업이 가운데 자기의 능력 이하의 목표를 설정하는 이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來日의 世界는 수학적인 것에 능한 사람, 법률에 능통한 사람, 가공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등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보다 중대한 것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말일성도의 학생이 다 이상에서 열거한 학교에 등록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까닭에 종교단체는 종교교육을 위한 특수 학원을 세계 여러 처소에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가까운 종교 학원에 참석하여 종교적인 교육과 영적인 교육을 아울러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대학교 수준에 해당하는 185개의 종교 연구소를 갖고 있습니다.

종교 연구소에 적을 둔 학생은 훌륭한 사회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유능한 사람이 이끄는 영적인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종교 학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에는 테서렛 클럽이 조직되어 있으며, 이 조직의 목적은 교회의 젊은이들이 함께 활동할 기회를 주자는 데 있으며, 가장 높은 이상과 이념을 갖게 하는데 있습니다. 지혜와 행복의 열쇠는 개인으로서의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하고 재미있느냐를 결정하는 데서 얻어 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종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통하여 무엇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의 저자는 말하기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 쟈니라” (잠언 4:7)

벡케이 대관장님은,

“참된 인품의 완성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참된 교육은 사람을 위대한 음악가로 만들고, 언어학자로 만들고, 수학자로 만들고, 과학자로 만들고, 지성인으로 만들뿐만 아니라, 덕을 지닌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고, 관용과 형제애를 갖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아울러 교육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자제력과 관용과 지혜와 정의와 진리의 수호자를 발전시켜 줍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성도는 노소를 막론하고 인생의 참된 목적이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얻는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지라는 뜻에 좇아 우리는 높은 이상의 교육을 늘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예지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 부활 할 때에 우리와 함께 부활하리라. 만일 어느 사람이 부지런하고 순종하여 다른 사람보다 한층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었으면 장차 오는 세상에서 그만큼의 유익을 얻으리라” (교성 136:18~19)고 하셨습니다.

친해하는 형제 여러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니 모든 면에서 내일에 있을 영광을 쟁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 회원이 발전해 갈 모든 가능한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합당한 노력의 대가를 지불할 때 도달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이 도달할 수 있기를 거듭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불가분의 연결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시기를 빌며 그리하여 도토리 한알에서 커다란 떡갈나무가 자라듯 여러분이 본래 떠났던 그 영광의 모습을 이룰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시니 주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바로 위에 계심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찾아 주시는

하나님이시어 감사하나이다.

밤이나 낮이나 아무때라도

늘 당신께 말씀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천상에서 시작하여 온 땅을 휩쓴 무서운 전쟁은 바야흐로 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경고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경고와 부름은 교회의 대관장이며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시는 분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준비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비롯하여 손끝과 발끝에 까지 다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스스로의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자기의 영혼을 다스리는 대장이어야 합니다.

미국 라디오 방송협회의 테비드 사노프씨는,

“여러분은 현재 과학의 소산인 무섭고 새로운 힘, 말하자면 모두를 파괴시키거나 새로운 世界를 구축할 수 있는 무서운 힘과 마주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여러분 스스로와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일종의 인류 전체에 대한 사명감과 여러분의 계속적인 노력이 과연 여러분 수중에 들어온 이 놀라운 힘을 파괴에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보다 낫은 세계 건설에 쓸 것이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고 그가 말한 학생들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계속하여 그는,

“……거센 물질 문명과 회유주의의 물질에 저항하기 위한 정신의 재 무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기갈이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반면 가장 근본적인 기아인 구원과 신앙에 대한 기갈이 극심해 질 것입니다. 이는 세상적인 물질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인간의 정신과 이상을 소홀히 하여왔기 때문이리라고 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수 많은 가능성과 사건을 내포한 미래에 대하여 굴하지 않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는 시도하겠다는 신앙과 치솟겠다는 포부와 끝까지 참겠다는 용기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네 영육을 적시리라.

성신은 변치않는 네 동반자가 되며 네 홀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홀이 되며 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네게로 흘러 들어 가리라” (교성 121 : 45~46)

우리 다시 한번 “오 높은 영광 보좌”의 찬송가를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고,

“연약한 이 생 내 떠나서  
세상 생명을 마치오면  
부모 양친 하늘 궁전에  
즐거이 이몸 맞으리  
당신께서 하라신 과업

불초 내가 다 할 때  
당신 곁에서 함께 살라  
허락하여 좁소서”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 보기로 합시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맡은 바 일에 얼마나 충실하며, 주의 영의 안내를 받아 일하게 된 곳에서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는가 또는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우리들에게 “나에게 오라”고 부르시는—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충실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이 건물을 떠나면서 우리 개개인이 보다 훌륭한 성도가 되고 보다 많은 지식을 얻게 되고 가난하고 험하고 굶주린 자에 대한 더 큰 사랑을 품으며 보다 큰 이해력을 갖게 되기를 아울러 간구하는 바입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을 빌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말씀드립니다. 아멘



## 지혜의 말씀

부대광장 엔. 엘든 태너

다음의 기사는 1968년 4월 9일 오전 10시 태버나클에서 열린 대회에서 하신 태너 형제님의 말씀입니다.

백 삼십 오년 전에 하나님의 예언자는 “……성도 혹은 성도라 불릴 수 있는 자로서 연약한 자와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연약한 자의 능력에도 감당해 낼 수 있는 약속이 따르는 원칙으로 주는 것이니라.

보라 진실로 주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말씀 하시느니라 만일에 모의를 피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존재 할 악과 음모로 인하여 이 지혜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경고하였고 또 미리 경고하노니”라는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을 계시로 알려 주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89 : 1~4)

다른 것 중에서도 담배와 강한 음료의 사용을 금하시고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릇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며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배꼽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리라.

또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아 내리니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나 주는 저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려들에게 한 것 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 (교리와 성약 89 : 18~21)

교회의 회원인 우리들은 지혜의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주신, 경고와 약속이 따르는 훈계로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는 종교나 민족 여하를 불문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 지혜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신문이나 잡지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기사 제목을 읽게 됩니다.

**담배로 인화된 불이 아파트를 태우고 사망자를 낸.**  
**젊은이들이 자포자기하여 마취제를 사용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음.**

**300명의 비행사가 알콜 중독으로 사망했다.**  
위에 든 기사는 모두 담배, 마약 및 알콜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커다란 위험성과 제가 지

금까지 경험하고 목격해 온 사실 때문에,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이 세계의 장래를 결정할 우리의 젊은이들에 대하여 크게 근심한 나머지 알콜, 마약 및 담배의 해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사업상 가깝게 지내온 사람들 중에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공동의식이 강한 높이 평가되는 분들이었음을 밝히고, 이러한 사람들이나 또 담배와 술을 애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특성을 비난하거나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들과 관계되는 위험성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담배나 술을 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들은 참으로 백해 무익한 것인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담배의 해독에 관한 것이 많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담배의 해독과 그 통계 자료를 살펴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여하튼 담배의 해독에 관한 몇가지 사실과 그것이 숫자상으로 보여주는 현상을 들어 보겠습니다.

영국 국립 의과대학은 작년에 영국에서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 수는 20,000명 다시 말해서 매주 400명에 해당하는 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이곳 유타에서도 1966년도에 담배로 소비된 액수가 이천만불 다시 말해서 주의 남자, 여자, 어린이 할것 없이 매인당 21.68불이 소요된 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가 전체평균 보다 낮은 현상입니다.

미국 위생협회는 백만명에 달하는 고등학교 연령층의 학생들이 70세가 되기 전에 폐암으로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놀라운 예측은 담배의 악영향에 물들지 않도록 적극 그들을 가르쳐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합니다. 매우 가까운 제 친구와 친척들이 간암으로 죽는 것을 보고서 다른 젊은이들을 이와같은 나쁜 습성에서 구해 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부모님들 뿐만아니라 교육계와 의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까지도 늘 입에 담배를 물고 다니는 그런 환경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어떠한 운동이라도(흡연 금지 운동)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따지기 전에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취제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지난 10월 연차 대회 이후로 제가 경험한 두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연차 대회가 있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어느 와드의 감독이 칼리포니아에서 부터 히피족의 생활속에 묻혀있는 한 젊은이를 데리고 와서 그들 만나보고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회가 끝나자 곧 저에게로 왔습니다. 그의 긴 머리카락과 옷차림 그리고 전체에서 풍기는 것으로 분명히 히피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차츰 지중을 말하라고 하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귀환 선교사로 결혼했으며, 저에게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히피로서 마약 중독자입니다. 저는 많은 경범죄, 심지어는 중죄까지 범한 죄인입니다.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제가 절대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서 그와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들 무리속에 흡수될 수 있었느냐고 묻자, 그는 어느날 매우 풀이 죽어 낙담해 있던 중 자유롭게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하한 전통이나 교회의 규범에 절대로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자유롭게는 커녕 이렇게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도망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제발 저를 도와 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머리를 깎고 몸을 깨끗이 하고 히피족들과는 관계를 끊고 생활을 전향하여 율법에 따르고 회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고 합당한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의 글은 1968년 3월 22일에 그가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태너 형제님. 지금 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 주실런지요! 저는 지금 형무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도 저와같이 사탄의 손아귀에 떨어지지 않기를 참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다른 젊은이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주었던 감독님을 갖게 된 축복에 감사하며 태너 형제님 염려해 주심을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젊은이를 한 예로 드는 이유는, 그가 지닌 배경이 더 많은 죄를 짓지 않고 그것을 제지하고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아무런 제약이나 책임감 없이 그와같은 젊은이를 마약에 취해있는 사람들과 접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 천만한 것인가를 보여주려는 데에 있습니다. 그 젊은이의 경우는 참으로 통탄할 일이며 이일로 제 마음은 심히 괴로웠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예입니다. 여기에 예로 드는 소녀와 그 부모를 만나 제가 수많은 청중에게 얘기하기만 하면 누구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잘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얘기로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서슴치 말고 하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소녀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저명한 의사였으며, 가족은 모두 교회와 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집에는 막 선교 사업을 끝마친 아들이 하나 있고, 현재 선교사업 중에 있는 아들이 또하나 있으며 교회에서 활동적이며 신전 결혼을 하고 매우 존경받는 나이 많은 딸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로 드는 소녀는 영리하고 온순한 소녀였는데 자기 또래의 소년 소녀들과

어울려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그들중 어떤 아이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마약을 사용하여 “비정상인”으로 간주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이 소녀는 압력에 저항하는 것 보다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딸과 만나서 얘기를 주고 받는 기회도 자주 갖지 못했을 뿐 아니라, 딸이 하고 있는 일은 다 잘 되어 간다고 오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딸이 술, 담배, 마약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크게 놀라서 슬픔을 어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딸을 감화원에 보내는 도리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수치, 슬픔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이 소녀는 현재 감화원에 있으나 결심과 참다운 노력으로, 더우기 감화원의 도움을 받아 주말에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과 함께 지낼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제가 그녀와 얘기했을 때 그녀와 부모가 크게 걱정하는 것은 그녀가 감화원에서 풀려나오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유로우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대해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자유롭고 편안하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며 완전히 치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전에 사귀던 친구들과 인연을 끊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느냐고 묻자 그럴 수 있다고 확답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 중 여러명이 감화원이나 감옥에 있다고 말하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감화원에 있는 매우 가엾은 사람들의 얘기도 들려주고 이제는 어쩔수 없이 되어버린 열 아홉살 난 소년의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살이나 자살 미수에 관한 기사도 흔히 읽습니다.

이러한 예는 젊은이나 부모인 경우를 막론하고 자기들 앞에 닥치는 문제나 위험을 직시하게 해 줍니다. 부모 여러분은 자녀를 잘 보살피고 돌보아 주셔야 합니다. 위에 예로 든 아이가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안 되리라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이제 어디를 가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알콜에 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와 아주 잘 아는 분의 얘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는 캐나다 앨버타에서 유전 경영자로 성공하여 존경받고 호평을 받는 훌륭한 시민이었으나 다른 사람들 처럼 사교상 어쩔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를 계속하여 결국은 알콜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행히 알콜 중독 방지회의 도움을 받고, 또 자신이 말하는 바 주님의 도움을 받아 이 무서운 병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날 젊은이들에게 얘기해달라는 저의 청탁을 받고 그는 즉시 “만약 제 얘기가 젊은이들이 알콜의 독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꼭 제 얘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 있을 때는 술이 유해하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카테일 파티나 기타 피로연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술에 대하여 절대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잔 또는 네잔 심지어는 술을 마셔서는 안되는 대낮에도 술이 마시고 싶다는 충동을 자주 받았으나 제 자신이 알콜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도랑에 빠져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까지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 나의 동업자, 사업 친구, 저를 아는 모든 사람, 심지어는 저의 아내와 가족까지도 저를 신뢰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아내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애원하고 나를 위하여 애쓰다 못해 저와 이혼을 하고 결국 저는 저 혼자 남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신에 대한 위엄도 잃고 가정도 잃고 가족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도랑에 빠져서 혼자 속수무책으로 있는 자신을 알아차리고 알콜 중독자 방지회에 가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들의 도움과 저의 결심으로 여려달 심한 고통을 겪은 다음 주벽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명 중 한 사람 정도만이 치명적인 주벽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람들은 아무도 한 잔 마실 때에는 자기가 알콜 중독자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위나 재산 여하를 불문하고 한잔의 술이라도 마셔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에게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도 말라고 간청했으며 술을 마시는 사람은 15명 중 한 사람씩 알콜 중독자가 되며 때로는 가장 영리하고 유능한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닥친 비극을 젊은이들이 피할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는 어느 부모의 허락을 받고 또 하나의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수집철 속에는 신문 쪽지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아들이 비극적인 일을 당하기 전에 쓰여진 기사와 아주 잘생긴 젊은이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기사는 이러했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짐이 등장하게 마련이었습니다. 학교 연극, 학생 운영 위원회, 학급 활동 등에서 그의 지도능력은 늘 현저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소년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밤 그가 일하던 주유소에서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올 시간이 넘었음에도 돌아오지 않으므로 이를 걱정한 부모님들은 그를 찾기 시작했고 밤새 찾은 결과 아침 무렵에야 아들이 매를 맞고 상처 투성이가 되어 정차하고 있는 어느 차의 뒷 자리에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죽은지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받은 충격과 슬픔이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슬픔에 찬 부모의 조사로 짐은 한패의 자기 마을 소년

들과 또 한패의 이웃 마을 소년들이 모이는 곳에 함께 어울려 술을 사서 마시다가 그들간에 껍싸움이 벌어졌을 때 어떤 아이가 짐을 때려 놓은 다음에 그위로 차를 몰고 지나간 다음 그 시체를 후에 발견된 그 차의 뒷자리에 놓고 달아났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그 때 세번째 술을 마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술을 마실 때는 그것이 이처럼 죽음에 이르는 번을 가져 오리라 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통계자료 사건 및 숫자로 나타나는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매우 성공적이며 일반의 호평을 받을뿐 아니라 저도 크게 존경하는 분들중에서 어느 정도 술을 마시는 행정가, 사업가 및 저명한 인사들이 있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알콜 사용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쳐 사교적인 음주가가 되게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15명 중 한 사람이 알콜 중독자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콜 중독이 가져다 주는 불행을 견뎌내야 할 이웃 친구 혹은 가족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나쁘게 되고 싶어하지도 않으며 의식적으로 알콜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가 되고 폐암이나 기타 폐질환으로 고통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위의 저명한 인사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가정에서 음주하는 것을 봅니다. 유명한 잡지, 신문, 텔레비전, 영화에 광고되는 것을 보고 또 라디오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광고에는 의례히 옷차림이 훌륭하고 큰 차와 훌륭한 사무실을 가진 건강해 보이는 사업가나 온갖 종류의 스포츠계에 종사하는 젊은 남녀들이 한 손에는 담배 한 손에는 술잔을 들고있는 모습이 같이 등장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멋진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저항해 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강한 세력으로 영향을 주는 광고계에서는 음주한 다음날 아침 대단한 두통으로 고통을 받는 남자나 혹은 여자를 보이지 않으며 끼꾸로 박힌 차나 상처 투성이인 시체나 파피된 가정이나 구렁에 빠진 사람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식도암 혹은 폐암에 걸려있다고 말하는 의사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삼킬 수 없기 때문에 콧구멍에 튜우부를 끼고 그것으로 영양을 섭취하는 사람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이처럼 잔인한 일들이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수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슴 아프고 슬픈 일들을 외면해 왔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맡은 바 임무를 다해야 겠습니다.

저는 알콜 중독자가 되는 기회를 어떻게 주릴 수 있는가 하는 윌리엄 터훈 박사의 십계율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중 마지막 두 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불안을 모면하기 위하여 절대로 술을 마시지는 마십시오”

“만취된 것이 좀 깨어나리라는 생각으로 아침에 술을 드는 일은 절대로 피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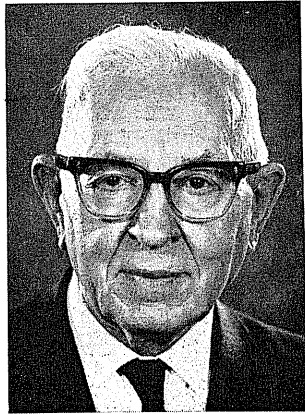
저는 그의 열가지 계율 대신에, 이 열가지 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무조건 술을 들지 마십시오” 라는 한가지 계율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알콜 중독은 아무라도 절대로 걸려서는 안되는 질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지 않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절대로 술을 들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대관장단의 승인을 받고 그분들을 대신해서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킬것을 호소하며 책임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그들의 책임을 받아드리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하여 젊은이들을 파멸로 인도하려는 악한 사람들의 생각과 악한 행동에서 젊은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의 배만으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파멸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원을 받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분명히 아실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유산을 죽 한 그릇에 파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됩니다. 관광객의 흥을 돋구는 데에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고장에 여행자를 유치시키기 위하여 자기 혹은 자기 이웃의 아들이 알콜 중독자가 되도록 조장하는 부모나 이웃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모범은 가장 위대한 교사이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술은 인간에게 좋지 않다는 주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아 내리니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서는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것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합니다. (교리와 성약 89 : 19~21)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는 만인류의 구세주이시며, 이분들은 우리의 행복에 대하여 열려해 주신다는 간증을 드리면서, 주님의 영광과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여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악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잔악한 생각과 계획으로부터 우리 젊은이들을 보호하여 유혹에 인도되지 않고 악에서 구함을 받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 매일 기도의 필요성

부대관장... 요셉 필딩 스미스

다음은 1968년 4월 5일 금요일 오전 총회에서 대관장단의 스미스 장로님이 행하신 말씀의 전문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대회에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말일성도로서의 우리는 해야 할 의무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간혹 부주의하고 경솔하고 또 경시하여 복음속에 담겨진 단순한 것을 간과하여 버리거나 앎나 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왜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머리를 숙여 경배드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 때문에 기도를 원하셨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은 자기를 경배하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모든 것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안하거나에 관계없이 크신 사업은 수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현재 경험을 쌓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지구와 같은 세상이 많습니다. 그 땅에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있을 것이며, 그들도 주님께 봉사할 특전과, 기회와,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과 똑같은 계명을 받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자세히 알고 계시며 우리가 돕지 않는다고 해도 전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 목적은 자기가 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한 말씀을 보고 드리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기도를 드린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만을 위하여 드리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발전을 꾀하고, 힘과 용기와 주님을 믿는 신앙을 크게 해 달라는 간구의 뜻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란 우리의 영혼을 겸손하게 만드는 그 무엇입니다. 이해의 문을 열어주는가 하면 마음을 생기에 넘치게 하기도 합니다. 하늘 아버지와의 거리를 좁혀 줍니다. 우리들

인간은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필요로 하는 인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품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와 맺은 성약에, 그리고 그가 주신 진리의 원리에 진실하고 충실하다면, 우리는 부활하여 그의 면전에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며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태양과도 같은 빛을 발할 것이며, 더구나 우리가 이 곳에 머무르면서 진실하고 충실하다면 우리는 영광스런 그의 아들이 되며 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이 부활한 후에 사람 사람간에 현격한 차이를 두시려 합니다. 또 사실에 있어서 현재 지상에 살고 있는 백성 가운데는 그의 아들과 딸로 불리우지 못하고 다음 세상에서 중의 위치로 영원을 살아야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보통 산상수훈으로 일컬어지는 훌륭한 말씀에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 복음 7:13~14)

영생은 이 지상에서 주님의 계명을 기꺼운 마음으로 지키려는 사람을 위하여 준비된 큰 선물입니다.

모든 인간은 부활합니다. 그러면 부활한다는 것 자체가 영생을 뜻합니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에도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러한 상태를 불멸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즉 영원히 사는 권리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생이란 말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리는 것과 같은 생활, 그 분이 갖고 계신 축복, 영광, 특권의 면류관을 써 결국은 하나님 가족의 일원인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려면 복음에 속하는 모든 성약을 지키며, 우리의 지상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성약에 진실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속을 받게 되고 상속

자로 불리우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상속받겠습니까? 그분의 위치가 낮아지고 우리가 높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분이 소유하신 축복과 특권을 그리고 영원한 발전의 기회를 받아 때가 이르면 한정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통하여 그와같이 되어 자신의 왕국과 보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오늘 이곳에 참석한 여러분중에 저 세상에서의 종의 위치를 원하며 별의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면 그 곳에서도 불멸의 특권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상태를 원하신다면 다른 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십일조를 바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곳이 그러한 왕국일진대 죄의 사유함을 위한 칩제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면전의 해의 영광의 왕국에서 그와 더불어 살며, 승영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보다 가까운 위치에서, 보다 밀접한 친근한 교통을 나누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생활하기 위하여는 진실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며, 진지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생활의 슬픈면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복음 율법을 깨뜨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습관이란 아주 쉽게 굳어지게 됩니다. 나쁜 습관이 쉽게 굳어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로, 좋은 습관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고질화된 거짓말쟁이라면 좋은 것을 이야기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부정한 습관에 젖어있는 사람이 정직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평생을 두고 기도 한번 못해본 사람이 기도하기란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과거에 정직했던 사람이라면 거짓말을 쉽게 못합니다. 언제나 정직한 사람이 부정직한 일을 범했을 경우라면 크게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마음의 화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정신이 철저한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회향을 맛보게 됩니다. 자기가 드리는 기도가 언제나 응답된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주님에로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개종한 사람에게서는 수입의 십분지 일을 내는 십일조의 헌납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뜻에 따르기를 원하면 멍에는 편하고 짐은 가볍다는 **위대한 진리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사역에 종사하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너희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교리

와 성약 4 : 2)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그를 섬기려 한다면, 해야 할 일도 많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율법에 일치하며 자신도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아버지와 구세주가 아무것도 안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의 위대한 업적이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을 위하여 일해오신 것 처럼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경우, 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원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수 조건은 회개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에 원하는 사람을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곳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도둑이며 강도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속임수로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가짜 주화로 승영의 보상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복음 의식에의 순종은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하는 바입니다. 주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구세주는 세상에 오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이 위대한 교훈은 인간을 살리기 위한 격심한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으로 협조하여 이웃을 도와주며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가 베푸신 무한한 희생에 대한 감사를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으로 보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일에만 급급한 사람은 결코 승영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를들면 기꺼이 기도하며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나 자신의 일에 관계된 의무만을 수행하는 사람은 완전히 아르지 못합니다. 봉사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돕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을 도와주며 진리를 듣지 못하여 영적인 암흑에서 헤매는 사람을 구해야 하며 빈곤하고 실의에 빠진 사람을 구제해야 합니다.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들 자신을 시온산에 임하신 구세주로 생각하면서 월 엘, 톰슨의 시를 음미하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  
내가 궁핍한 자 도왔나  
슬픈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잘못된 것일세.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 한국어 찬송가 36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잘못 봉사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축복과 그 길에서 멀어지지 않게 돌보아주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거듭 남”의 비유

부대관장 알빈 알. 다이어

다음은 1968년 4월 6일 토요일 오후 총회의 알빈 알. 다이어 부대관장님의 말씀 전문입니다.

흡사 안 사람이 지금 옆에 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족과 더불어 주님의 일에 봉사하려는 저를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유명한 율법사가 영생을 얻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고 나사렛의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의 답변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으나, 인간의 지식으로 가득찬 사람은 이해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늘 왕국에 들어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찬 곳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면 “거듭 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 나기 위하여는,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이르신 바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복음에로의 개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육체를 입고 현세를 사는 동안에는 꼭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로만 보이는 계기를 통하여 거듭나기도 합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사고나 슬픈 일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물론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변화무쌍한 인간생활에서 순간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거의 죽을뻔 했던 경우를 두번이나 치렀습니다. 제가 집사 연령이었을 때 한 2인치 반이나 되는 모자에 꽂는 핀을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창문 옆 의자에 기대 앉아 있다가 무서운 천둥 소리에 놀래 그만 핀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영문을 몰랐으나 정신을 차려 핀을 삼켰음을 알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저는 무릎을 꿇고 제발 죽지만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때 그 자리에서 평생을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바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음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또 한번은 제 안 사람 메이와 글로리아와 브렌트 두 아이와 함께 썬타 모니카의 해변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냉방 장치도 없는 차로 여러 시간을 달린 후였습니다. 우리 일행은 곧 수영복으로 바꾸어 입고 모래 사장으로 달렸습니다. 아내 메이와 두 아이는 모래 사장에서 선선한 바람을 맞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뛰어들어 수영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지나치게 멀리 나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되돌아 나오는 중에 빙빙도는 물에 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하여 빠져 나오려 했으나 별 수가 없었습니다.

익사 직전의 저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나지 못하겠다고 단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지난 날의 여러 가지 일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다시 붉은기를 꽂아 놓은 안전 수영지역을 벗어나므로써 자초한 그 위험의 상태에서 구조되기를 강렬하게 바랬습니다.

목소리를 높혀 구조를 청했습니다. 파도가 치고 안개가 두점게 낀 날씨였으나 이상하게도 수상 경비원이 구명선을 타고 와서 기진 맥진한 저를 건져주었습니다.

해변가에 이르러 경비원의 도움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모래사장 위에 가만이 앉아 지난 일을 꼼꼼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하늘 아버지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며 살아있는 동안 가치있는 생활을 해야겠다고 하는 강한 감정을 이식받은 다시 산 날이었다고 믿습니다.

아마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새로운 기회를 맞아 발전하기 위한 노력에 새 기운을 불어넣는 것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부름이 올 때 마다 이러한 것을 느끼고는 했습니다. 작년 10월 대회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시각에도 “새로 태어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지 못하나 혹은 사람들이 왜 저를 좋게 생각하지 못하나 하는 점에 생각이 미치면 우울해 집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제가 싫어하는 대상을 추구한다고 해서 나쁜 감정을 갖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저의 생이 지금 이 시각에 끝난다거나 또는 거듭남이 가능한 전기(轉機)를 마련할 수 없다 하여도 저는 지금까지 제가 겪어온 것에 감사해야만 하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맥케이 대관장님의 이해로 가득찬 마음



을 무한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분과의 관계는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와드 성찬식에 아무 예고도 없이 나타나셨던 때입니다. 저희 와드가 청소년을 성공적으로 선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참석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를 잊을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저에게는 영감을 받으신 참다운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위대한 분을 정말로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던 때였습니다.

제가 구라파 선교부를 관리하고 있을 때에 주신 전화나 편지는 언제나 깊은 관심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으며 확신을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놀웨이어서 잠 못이루고 있던 날 새벽 두시의 전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부 전반에 걸친 문제를 결정할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었으나 혼자서 능력으로는 결정할 수가 없었고 그리하여 확고한 신념같은 것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때 대관장님의 음성은 마치 하늘의 빛과도 같았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무거운 직책으로 불러 주시고 걱정하여 주시며, 하늘 아버지의 말일의 과업을 이를 헌납되고 정해진 땅 미조리주를 지키는 “파숫군”이 되라고 불러 주실때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백케이 대관장님과는 아주 가깝다는 감정을 종종 느낍니다. 서로 빵을 마주 대고 있을 때, 빵을 타고 흐르는 눈물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신념에 감사를 드리며 결코 이를 등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지지하여 주신 형제들이 지닌 확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교회의 일을 처리하는 용기와 헌신을 무한히 존경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는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한 승리의 결과를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번 강조하여 간증드린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시는 선지자가 계십니다.

실의에 빠져있는 선지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때의 진리는 현재에도 진리입니다. 주님이 주신 충고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과 계획과 목적은 좌절될 수 없고 수포로 돌아갈 수도 없나니

하나님은 굽은 길로 걷지 아니하시며 바른 쪽으로나 왼 쪽으로도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고치시지도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은 곧고 그 나아가시는 길로는 하나의 영원한 원이니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좌절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요, 인간의 일이니라.” (교리와 성약 3 : 1~3)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심한 박해와 고통으로, 기업으로 받을 안전한 피신처로 주님이 정해주셨으며, 나아가서는 새로운 예루살

렘성이 건립되리라고 하신 미조리주 재산군의 성별된 땅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던 때에도 주님은 용기와 신념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은 간절한 기도로 일이 악화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예언자는 당황하고 슬픔에 잠긴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이 편지에 미조리의 성도들이 겪어낸 고통과 성도들 중에 있는 죄지은 자를 대신하여 무죄한 성도가 받는 고통이 어떠한을 잘 안다는 내용을 적으셨습니다.

“행복했던 세월을 함께 나눈—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나라에 있었으며 저와 같은 간증을 나눈—형제들이 쫓겨나 땅을 헤매는 나그네나 순교자처럼 기아와 냉혹한 추위와 험박함과 파괴와 폭력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경련의 때를 볼 만으로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은 일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바라고 비록 여러분이 환란과 고통이 심하다 하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정사 1 : 454)

주님이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대답에서 우리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용하면 :

“그러므로 시온에 다하여는 너희 마음을 놓을지어다. 모든 육체는 내 손안에 있나니,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인줄 알라.

시온은 그 자녀가 흩어졌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옮겨가지 아니하리라.

남아 있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돌아오리니, 저들과 저희 자녀는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상속의 땅에 이르러 시온의 황폐한 곳을 쌓아 올리리라.

(교정 101 : 16~19)

위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통계 기록으로 본 교회 발전

대관장단에서는 1967년 말 현재 교회 회원에 관한 통계 기록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1967년 말경 시온의 스테이크 수.....	448
와드 수 .....	3,544
스테이크내의 독립지부 수.....	622
년말경 스테이크내의 와드 및 독립지부 수 .....	4,166
년말경 선교부내의 지부 수 .....	1,987
년말 북음선교사가 파견된 선교부 수 .....	79

1967년 12월 31일 현재 회원수 :

- 스테인크내 회원수 .....2, 144, 766
- 선교부내 회원수 .....469, 574
- 회원총수.....2, 614, 340

1967년의 교회 발전 상황 :

- 스테인크 및 선교부내의 어린이 축복수 ...56, 387
- 스테인크 및 선교부내의 침례받은 어린이수  
.....53, 591
- 스테인크 및 선교부내의 개종자수.....62, 280

사회 통계(스테인크가 제공한 자료를 종합한 것임)

- 천명에 대한 출생률.....27. 55
- 천명에 대한 결혼률.....16. 11
- 천명에 대한 사망률..... 5. 05

신권별 :

- 1967년 12월 31일 아론신권 소유자의 수 :
  - 집사.....118, 149
  - 교사..... 83, 583
  - 제사.....121, 842
  - 아론 신권 소유자 총수 .....323, 574
- 1967년 12월 31일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의 수 :
  - 장로.....216, 354
  - 칠십일..... 22, 962
  - 대제사..... 72, 150
  -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 총수 .....310, 466
  - 아론,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 합계 .....634, 040
  - 1년동안의 신권소유자 증가수.....36, 360

보조 조직 :

- 상호부조회(회원).....298, 825
- 주일학교(평균참석).....777, 354
- 청남상향회(등록수).....313, 956
- 청녀상향회(등록수).....326, 795
- 유년협회(등록된 어린이수) .....473, 480

복지 계획

- 1년동안 도움받은 사람수 .....112, 055명
-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수 .....6, 809명
- 복지계획에 투입된 노동 연일수 .....130, 966일
- 복지계획에 투입된 장비 사용 연일수.....7, 300일

계보 협회

- 1967년에 신권의식을 위한 서류 정리를  
완료한 사람수 .....1, 986, 335
- 1967년 일년동안 16개국에서 촬영한 마이크로 필름  
의 길이는 100피드짜리 699, 587개로서 이는 300페  
이지 짜리 인쇄물 3, 000, 000권을 촬영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한다.

신 전 :

- 13개 신전에서 1967년 동안 집행된 의식의 수 :
  - 산자를 위한 의식 .....54, 826
  - 죽은 자를 위한 의식 .....4, 510, 940
  - 의식을 집행한 사람의 총수 .....4, 565, 766

교회 학교 계통

- 1967년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 적을 둔 학생수  
(학원이나 세미나를 포함).....186, 323

## 신임 총 관리 역원 소개

**알빈 알. 다이어** 형제는 오랜동안 신권의 임무를 맡고 지도자로서 헌신해 온 결과 대관장단에서 새로운 직책을 갖게 되었다. 그는 1903년 1월 1일에 쏘트 레이크 시에서 태어났으며 열두 형제 자매가 있는 성실한 말일성도 가정에서 자랐다. 그는 최근에 다음과 같이 말한적이 있다. “나는 부모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 나의 아버지는, 지금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옛날 서부 개척시대를 체험하면서 살아오신 분이며, 어린 아이였을 때는 마음씨 좋은 인디안들이 개척자의 마차에 있는 그를 훔쳐간 대신 당나귀 여섯 필을 마차 바퀴에 매어놓고 간 일도 있었으나, 그는 살아서 평생을 살은 서부에서는 인디안들의 다정한 벗이 되어 그들에게 훌륭한 상담자의 역할도 했다. 그가 소년이었을 때는 매일 밤 쏘트 레이크의 중심가에

있는 36개의 캐스 램프에 불을 켜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 그는 말을 사랑했으며 16세 때는 아이다호의 스테이크 강에서 쏘트 레이크 계곡에 까지 소떼를 몰았으며 18세 때는 기관차의 화부가 되었고 20세 때는 기사가 되었으며 결국은 그가 평생 종사해 온 직업이 되었다”

다이어 형제는 쏘트 레이크 시에서 학교를 다녔으며 그 때에는 특히 스포츠에 뛰어난 재질을 보였다. 학교를 마친 다음에는 동부의 여러 주에서 선교사업을 했으며 그곳에서는 지역장이 되었고 1923년에는 처음으로 시작된 “구모라 언던 축제”에 참여했었다.

1926년 쏘트 레이크 신전에서 메이 엘리자베스와 결혼하여 두명의 자녀 클로리아 메이 (리드 클라인의 부인이 되었다)와 부렌트를 슬하에 두게 되었으며 부렌트는 케틀

린 스미스와 결혼하였다. 그리하여 지금은 5명의 손자 손녀들이 있다.

다이어 형제는 20년간 판금 기술자로 일했으며 그후 1949년 국내 굴지의 물품 분배 회사를 설립하기 전까지 건축 자재 회사의 난방 및 냉방 장치 부서를 관리했다.

그가 1945년 미국 중앙 선교부의 관리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세 워드의 감독단과 두 고등 평의회에서 일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사년간의 선교부장 직을 마친 다음에는 청남 상향회 총 본부 감독단의 제일 보좌로 지지를 받았으며 1958년 10월 11일에는 십이 사도 보조로 부름을 받았다. 1960년부터 1962년까지는 유럽 선교부장으로 봉사했다.

그와 가까운 친구 한 사람은 그를 가르켜 “활동적이고 조직적이며 대단히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전생애를 바쳤으며,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정신력을 가진 참으로 선교 사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성스러운 일에 흡수 시킬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가 유럽 선교부장으로 있으면서 보여준 날카롭고 열의와 영감에 차 있는 지도력과 끊임 없는 노력은 유럽 전역에 걸친 선교사업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하였다. 그가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교훈적인 회보와 종종 갖는 대회에서의 영감에 찬 말씀과 현명하고 노련한 조언과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과 갖는 따뜻하고 고무적이며 친절한 접견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선교사들에게 ‘성령으로 간증하라’는 고무적이면서도 벽찬 과제를 주었으며 복음을 가르치는 데에 효과적인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된, 확신에 찬 음성으로 간증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교사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값있는 생활을 하고 간증할 때는 두려움이 없이 하라고 간청했다.

다이어 장로는 1967년 10월 5일에 사도로 성임되었으며 이 새로운 직책에서 그가 보이는 깊고 큰 영적인 힘과 지도력은 전 교회에 큰 축복을 가져올 것이다.

**매리온 디. 행크스** 장로는 거의 15년동안 칠십인 제일 정원회원으로 일해왔다. 행크스 장로는 1953년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원으로 지지를 받고 근 15년간을 젊은이들의 고문으로 활약했으며 깊은 통찰력과 용기로써 복잡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므로써 그의 두드러진면을 보였다. 그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연설가이며 앞으로는 계속 청소년 편집자로 교회에서 눈부신 활약을 할 것이다.

1921년 10월 13일에 쏘트레이크 시에서 탄생했으며 그가 두살 되었을 때 부친이 돌아가셨다. 그리하여 여섯 형제와 자매가 혼자된 어머니 슬하에서 자라났다. 어린시절의 친구 한 사람은 어머니 교육의 특성과 그 자신의 특색을 보여주는 행크스 형제의 젊은 시절을 다음과 같이 묘



사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식료 잡화 상자를 메고 혼자 되신 어머니가, 애써 살림하는 자기집 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배달하면서 그가 중심가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 같다”

그는 체구가 건장했을 뿐 아니라, 손 놀림이 밀첩했기 때문에 청년 시절에는 주장으로서 핸드볼 선수권 소지자가 되었었다. 이 운동에 뛰어난 솜씨는 전 고등학교 과정과 대학 초기에 까지 계속되었고 실제로 오늘날 행스크 형제는 유능하고 뛰어난 핸드볼 선수로 알려지고 있다.

대학시절의 농구 코치는 자기가 지금까지 유타 대학에서 보아온 사람 중에서 행크스 형제 만큼 장래가 촉망되는 농구 선수는 없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미국 북부 선교부에서의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거절하였다. 일찌기 집사가 된 후에는 웨익스피어의 작품과 교회의 표준성전을 읽느라고 밤이 깊도록 자지 않고 있는 때가 많았다.

이차 대전 당시에는 해병대 구축함을 타고 태평양에서 복무했으며 전쟁 후에는 유타 대학에 들어가서 법률을 전공했다. 졸업한 다음 법조계에 들어가지 않고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교회의 복음교리 연구원에서 봉사했으며, 지금도 복음교리 연구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받은 마치 스테이크 대회때 처럼 학생들로 붐비는 때가 종종 있다. 그의 가장 큰 기쁨은 사람들에게 빛과 진리를 구하라고 주장하여 격려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

행크스 장로는 맥사인 크리스텐슨과 결혼하여 17세 된 수산 게이, 16세된 난시 매리, 14세된 앤 엘리자베스, 11세된 매리 린다, 8세된 리차드 더프, 이렇듯 다섯 자녀를 두고있다.

그의 가까운 친구 한 사람은 “더프(행크스 형제를 말함) 주변에는 놀랍게 사람을 끄는 힘이 감돌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를 좋아하죠. 그를 아는 사람들 중에는 더프 행크스의 얘기 즉 그의 선한 뜻, 그의 우아함, 그의 유모어, 그의 판단력, 그의 민감함, 그의 선한 행동등에 관한 것을 가지고 밤이 다 가도록 얘기하는 일이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일하는 사람들 간에 화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투쟁을 한 일이 많았으며, 어느 사람이나 문제를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용감한 행동을 할 때가 많았다.

그를 아는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 사람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후회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물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답니다. 내가 선교 사업을 떠날 때는 자기도 필요한 형편인데도 자기의 것은 사지 않고 나에게 양복 한 벌을 사주었습니다. 그 일은 절대로 잊혀질 것 같지 않습니다.”고 하였다.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철저히 처리하는 그의 독특한 기질은 최근 동양과 하와이 선교지역 담당자로 월남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부인들과 소년들의 부모에게 40여통에 달하는 편지를 개별적으로 내야 하는 일을 초래하였다. 그는 정신 위생문제, 연합, 모금 운동, 소년단의 일, 사친회의 일, 대통령 건강 자문 위원(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시) 등의 일에 맹 활약했으며, 카리슬바락에 있는 군 전략대학에 두번이나 대표로 파견되었으며, 그곳에서 그가 보인 활동과 기도는 다른 대표들의 기억속에 살아 남아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그는 참으로 자기를 안다든가 또는 직접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 새로 부름을 받은 두 사람의 경력은 참으로 대조적이며 그들이 이 직책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이루어 놓은 일들은 인상적이다. 하트만 렉토 이세는 16년 전에 우리교회에 개종해온 분이며 로렌 씨. 던 형제는 스테이크 부장의 아들이다.**



하트만 렉토 이세는 현재 43세로 포토막 스테이크의 제 542 칠십인 정원회 선임 회장으로 4년간 봉사해 왔으며 현재는 미국 농림부 예산 및 재정청의 계획 예산 분석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1924년 8월 20일에 미조리의 모벌리에서 하트만과 비비안 웨이 가아빈 렉토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모벌리 가까운 농장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고등학교와 초급 대학을 졸업하였다. 1947년에는 해군 비행사로 복무를 끝마친 다음 모벌리의 콘스탄스 컵 다니엘과 결혼하여 한국 동란시에 현역으로 소집을 받을 때까지 미조리

에서 농장을 경영하였다. 그는 1958년까지 현역으로 복무했으며 그가 충실한 말일성도 군인으로서 복음을 소개해 준 맥도날드 존슨이란 사람을 만난 것은 한국 동란 당시였다. 그는 1952년 초봄 3월25일 기후가 약 30도(화씨) 되던 날 일본 동경 교외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의 개종은 충실한 말일성도 군인들이 동지와 친지들에게 복음의 원리를 전해준 숨은 애기가 있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1952년 3월에 렉토 자매도 침례를 받았다.

렉토 장로는 군인으로 있으면서(현재는 해군 예비역 대위이다) 켄터키, 미네소다, 조지아 및 캘리포니아의 여러 대학에서 공부했다. 한국 전쟁 후에는 미국 농림부의 농지 조사 위원이 되었다.

교회에서의 활동은 다양했고 많은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었다. 주일학교 교사로 4년, 와드 청남 상향회 회장으로 2년, 스테이크 선교사로 4년(그동안 47명에게 침례를 주었다), 와싱턴 스테이크 선교부장으로 1년, 스테이크 상향회 회장으로 3년 일해 왔으며, 근자에는 와드 세미나 교사인 동시에 제542 칠십인 정원회 회장으로 일해왔다.

렉토 자매는 현재 포토막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로 일하고 있다.

렉토 형제 집안의 교회 서적에 대한 애착으로 그들은 수년동안 집 밖에다 밀레니얼 서점을 열어 경영하여 교회의 사업에 기여해 왔다. 그들에게는 남 부라질 선교부에서 일하고 있는 19세의 조엘 커크, 17세의 카드린가아빈, 16세의 로라 콘스탄스, 14세의 린다 마리, 11세의 다니엘 하트만, 6세의 릴라, 2세의 존 마커스 이렇게 일곱 자녀가 있다.

렉토 장로는 자기가 개종하게 된 것을 회상하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나는 늘 진리를 찾고 있었으며 기도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생각컨대 ‘사랑하는 주님이여 저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수천번은 되는 것 같다. 내가 늘 찾고 구하던 것은 참 교회 즉 진리였다. 나는 위일 로저스와 흡사한 심정이었다. 그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신문에서 읽은 것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알고있는 것은 모두 교회에 들어온 다음부터 배운 것이다’라고 말했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그를 칠십인 정원회에 부르면서 “나는 형제님이, 주님께서는 형제님을 사랑하고 계시며 나도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맥케이 대관장님이 교회의 대관장 직에 부름을 받은지 11개월 후에 침례를 받은 사람이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외치는 맥케이 대관장님과 기타 총 관리 위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로렌 씨. 던 장로는 4년간 뉴 잉글랜드 선교부장단의 제이보좌로 봉사해 왔으며 현재는 보스톤에 본부를 둔 뉴 잉글랜드 경제 발전 위원회의 체신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1930년 6월 12일에 고인이 된 알렉스 에프. 던과 캐롤 호오스웰 던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20년간 투엘 스테이크 부장으로 일해왔으며 투엘의 transcript Balletin 발행인이다. 던 장로는 1949년부터 1953년까지 부리잡 영 대학을 다녔으며 (신문학 졸업) 그곳에서는 농구 선수였고 1951년에는 뉴욕 시에서 열린 전국 초청 토나먼트에서 우승했다. 이 농구 팀은 남 아메리카 원정도 했다. 그는 오스트랄리아에서 선교 사업을 했으며 그곳에서는 선교부장의 보좌로 일했다. 그다음 2년 동안은 미국과 유럽에서 육군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 1958년에는 부친이 경영하는 신문사의 편집자가 되었다. 1956년에는 십이 사도 보조 존 롱든과 라루 카 롱든 사이에서 태어난 새론 롱든과 결혼하여 지금은 7세의 케빈과 2세의 킴벌리 두 자녀를 두고 있다. 1961년에는 가족이 경영하는 신문사를 떠나서 동부의 보스턴 대학에 가서 1966년에는 광고학 석사 학위를 얻었다. 그는 뉴욕시에 있는 헤랄드 트리뷴지 선전부의

부국장으로 일했으며, 1963년에는 뉴 잉글랜드 위원회에서 현재의 직책을 맡았다. 던 장로는 올해 37세로 보스턴 로타리 클럽의 회장이며, 미국 소년단 알콘쿠인협회 동부지역 회장이며, 보스턴 대학 통신학교의 초빙 연사이며, 수개의 신문 공보 협회의 회원으로 일하고 있다. 던 장로는 말일성도 군인 구룹 지도자, 탐험대 고문, 뉴 잉글랜드 선교부 상향회 회장 및 와드 장로 정원회 회장단으로 봉사한 바 있다. 던 자매는 근자에 보스턴 스테이크 청년상향회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던 장로의 생애를 결정할 가장 큰 요소는 그의 부친이었다.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아버지처럼 위대하신 분은 없다. 아버지는 바쁘신 중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으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아버지께서는 조용한 나무람이나 직접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내가 가장 잊지 못해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 가족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과 가족기도로 인하여 생기던 분위기이다. 맥케이 대관장님이 나를 이 직책에 부르시고,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기대했던 것을 잊지 말고 주어진 부름에 충실하라는 큰 과제를 주셨으니, 이 과제는 평생을 두고 봉사해야 할 만큼 큰 것이다. 전력을 다하여 이 교회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영광이며 특히 교회의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게 되었다는 것은 감당할 황송한 일임에 틀림 없다”고 던 장로는 말하였다.

성로의 벗 담당자는 새로 부름을 받은 네 형제들을 축하하며 이들이 앞으로 하는 일은 교회와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믿어 마지 않는다.

## 벤슨 사도 동양 선교부 관리 책임자로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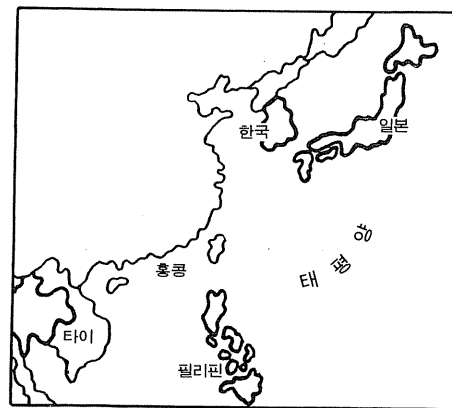
대관장단에서는 동양 선교부를 관리하는 사도로서 에즈라 테프트 벤슨 사도와 그의 보좌로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의 부르스 알. 맥콘키 장로를 임명하였습니다. 전에 동양 선교부를 관리하시던 핑크리 사도님은 남 아메리카를 관리하시게 되었습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부르스 알. 맥콘키



한 국 · 일본 (북극동선교부)  
필리핀 · 홍콩 (남극동선교부)

